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2 0 0 4 학 년 도
석 사 학 위 논 문

복음전도를 위한 웨슬리의 영성

Th. M. 과정 실천신학 전공

안 성 일

복음전도를 위한 웨슬리의 영성

지도교수 : 홍성철

이 논문을 석사학위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 0 0 4 년 월 일

서 울 신 학 대 학 교 대 학 원

Th. M. 과정 실천신학전공

안 성 일

안 성 일 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2 0 0 4 년 월 일

서 울 신 학 대 학 교 대 학 원

연구 목차

I. 서론-----	1
A.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B. 연구방법 및 내용-----	4
II. 웨슬리와 기도-----	8
A. 기도의 신학-----	8
B. 기도의 삶-----	22
III. 웨슬리와 말씀-----	33
A. 지식의 훈련-----	34
B. 순종과 사회봉사의 훈련-----	39
IV. 웨슬리와 교제-----	50
A. 소그룹의 경험-----	53
1. 신성클럽-----	55
2. 조지아의 종교신도회-----	57
3. 페터 레인 신도회-----	59
B. 소그룹의 활용-----	60
1. 속회-----	61
2. 조모임-----	64
3. 선택자회-----	66
4. 회개회-----	67
V. 웨슬리와 전도-----	68
A. 복음적 회심-----	69
B. 지속적 전도-----	80

VI. 결론-----	89
-------------	----

<참고문헌>-----	94
-------------	----

I. 서론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오늘날 세계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제까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비율의 인구증가에 사람들은 놀랐다. 세계인구는 교회 인구보다도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해 왔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세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온 반면에 교회 인구는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해 왔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아간다면 교회가 세계의 인구 증가율을 따라 잡을 승산이 없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인구 성장률이 교회 성장률을 넘어섰다. 최근에 한국교회는 침체기에 들어 있다고 한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폭발적인 교회성장의 역사가 80년대 초까지 일어난 반면 80년대 후반부터 교회의 개척이 어렵고 성장이 멈추고 심지어는 대형교회 중에서는 감소추세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회는 침체를 경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마다 전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더해 가고 있다. 교회들은 저마다 전도 프로그램을 교회에 도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전도가 프로그램이 되어 전도하는 수고보다 성과가 너무나 적게 나타나 곧 포기하는 교회가 많아졌다. 총동원 전도라는 이름으로 경품을 걸고 행사를 했지만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

성결교회는 성장의 정체를 경험하면서 그 정체성을 묻는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¹⁾ 성결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초기 성결교회가 주력하였던 전도 활동에 관한 중요성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이것은 전도 활동을 구체적인 문서로 남겨두지 않았고 초기 사역자들의 구령의 열정이 현재까지 전달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²⁾ 결국 성결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상실로 이어졌다.

1) 박명수, 『근대복음주의 주요 흐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464.

2) 하도균, “초기 한국성결교회의 전도활동에 관한 연구,” (부천: 서울신학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01), 4.

성결교회가 침체를 경험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도에 있다. 초창기 성결교회의 특징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전도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도균은 그의 논문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초창기 문헌의 성결교회 목적과 정빈 김상준의 사역, 동양선교회 복음 전도관이라는 성결교회의 명칭을 통해 한국 성결교회의 모습을 전도 활동이라고 말하고 있다.³⁾

요약한다면 성결교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한국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시작한 단체였고 성결교회의 주 사역은 전도 활동이었다. 적극적인 전도활동과 토착민을 중심으로 한 직접 전도 방식은 초창기 한국 성결교회가 다른 교파와 구분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이제는 초기 성결교회와 달리 회심을 통한 성장이나 회심을 통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소식을 접하기 어렵게 되었다. 오히려 복음전도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들만 하거나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성숙한 성도는 예배생활에 충실하고 봉사 잘하고 헌금 생활을 충실히 하는 사람으로 생각되어졌다. 가능하다면 전도는 하지 않고도 존경과 칭찬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결국 초창기 성결교회의 정체성인 전도는 식어지게 되었다.

성결교회가 침체를 경험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영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영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전도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형식적인 전도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본인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몇 년 동안 전도폭발훈련을 받고 훈련을 지도한 경험이 있다. 복음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평신도와 목회자, 신학생들이 훈련을 받고자 지원하고 있다. 복음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이 있다. 교실에서 이론을 듣고 현장에

3) 이명직목사는 성결교회 시작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따로 이 교파를 세운다든지 또는 선교 사업에 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연히 구원의 복음을 미신자에게 널리 전하여야겠다는 정신” 『조선 야소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약사』 (경성: 동양선교회이사회, 1929), 16. 『동양선교회성결교회 교리와 조례』 (경성: 동양선교회성결교회출판부, 1925), 5. “우리의 제일 큰 목적은 죄인으로 중생하게 하고 중생한 자로 성결케 하되 또한 신유의 권능을 나타내며 재림하사 천년 왕국을 건설하실 것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일을 가르칠 것.” 더 자세한 것은 하도균, “초기 한국성결교회의 전도활동에 관한 연구,” 1-3을 참고하라.

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전도폭발 사역 하나만 보더라도 복음전도의 효과는 대단하다. 그러나 표면적인 효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엄청난 숫자의 이면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숫자가 거짓이라는 것은 아니다.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전도폭발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날마다 복음전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훈련만 받고 끝나거나 형식적인 전도로 인해 아무 열매를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지만 그에 따르는 열매가 너무나 적다. 목회자와 평신도들은 복음전도 현장에서 자주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전도를 위해 시간을 헌신하지만 결과는 원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사람들이 일주일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분주한 생각으로 보내다가 전도를 위해 잠깐 시간을 내기 때문이다.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들은 전도에 대한 부담감과 열정 때문에 전도하는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훈련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복음전도를 위한 방법들이 프로그램으로 전략을 하게 되었다. 어떤 전도방법을 내세워도 그 방법을 통해 열매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전도를 위해 시간을 내고 평일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들이 복음 전도에 필요한 영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성결교회의 침체의 원인인 전도와 영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웨슬리의 영성을 제시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웨슬리는 위대한 전도자였다. 웨슬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회개와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났으며 성결하게 살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겨났다. 이들을 통해 18세기 당시 부패한 영국사회는 복음으로 변화되었다. 웨슬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 전도와 교제에 힘을 쓴 사람이다. 곧 복음전도에 필요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그의 삶이었다.

우리는 초창기 성결교회의 전도와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 초창기 성결교회는 회심을 경험하는 역사들과 그로인해 사회가 변화되는 이야기들을 쉽게 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회복을 위해 기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하여 그 목적대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복음전도에 필요한 웨슬리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데 있다. 둘째, 구체적으로 웨슬리의 영성, 즉 기도와 말씀, 교제와 전도를 어떻게 실천하였는지를 제시하는 데 있다. 셋째, 복음 전도를 위해 웨슬리의 영성을 오늘날 현대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데 있다.

B.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웨슬리 총서를 일차적 자료를 활용한다. 웨슬리의 신학과 삶은 그의 설교와 저작을 통하여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번역의 한계로 인해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는 것은 웨슬리에 관한 이차적 자료를 중심으로 보완할 것이다.

먼저 이 연구에서 말하는 영성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중생의 경험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즉 영적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⁴⁾ 분명한 것은 누구나 거듭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롬 8:9).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다.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아이가 모태에서 출생하는 순간부터 건강하게 자라나야 한다. 마찬가지로 거듭남을 통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야 한다. 갓난아이가 신체적으로 자라나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도 영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 성장해야 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야 한다.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하고 있다 (엡 4:13). 이런 영적 삶의 과정이 영성이다.⁵⁾

4) 홍성철, “영성훈련의 모델과 적용,” 웨슬리회심 기념강좌②, 서울신학대학교 (2002, 5): 2.

영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한 학자들이 많이 있다.⁶⁾ 그중에 영성을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정의한 학자가 있는데 바로 로버트 멀홀랜드(M. Robert Mulholland Jr.)이다. 그의 영성에 대한 정의는 미국의 많은 신학교에서 수용하고 있다. 그는 “영성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⁷⁾

본 연구에서 이 정의를 복음전도에 필요한 영성으로 한정지으려 한다. 이 정의는 먼저 영성은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둘째, 영성은 ‘닮아 가는’ 과정이다. 셋째, ‘닮아 가는’ 대상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넷째, 영성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⁸⁾

이런 영성의 정의를 바탕으로 위대한 전도자 웨슬리의 삶을 돌아볼 때 몇 가지 필요한 훈련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기도의 훈련이며, 둘째는 말씀의 훈련, 셋째는 교제의 훈련이며, 넷째는 전도의 훈련이다. 복음전도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은 전도자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교제와 전도는 전도자와 사람들의 관계이다.⁹⁾

결국 이 연구에서 말하는 복음 전도를 위한 웨슬리의 영성은 기도와 말씀, 전도와 교제이다. 웨슬리는 전도자로서 이러한 영성을 잘 실천한 사람이다. 하지만 위대한 전도자가 되기까지 웨슬리에게 영향을 준 요소들은 많이 있다. 그의 경험과 부모님으로부터 전수 받은 부분들과 가정과 시대의 영향이 있다.

그러나 그중에 우리는 전도자로서 훈련이 가능한 기도와 말씀, 전도와 교제의 네 부분만 살펴보고 이것을 복음 전도를 위한 훈련 모델로 제시하려고 한다. 이 네 분야의 훈련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기 때문이다. 또 이 네 분야에서 철저한

5) Ibid.

6) 정홍호, “영성의 정의에 관한 선교 신학적 고찰과 적용,”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논문집 성결과 신학』 제23권: 211-36.

7) 홍성철, “영성훈련의 모델과 적용,” 2.

8) Ibid.

9) Ibid., 23.

훈련을 한다면 다른 모든 분야 는 그 열매로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기 때문이다.¹⁰⁾

다시 말한다면 웨슬리는 사회를 변화시킨 사람이었다. 그는 구제와 봉사를 꾸준히 실천한 사람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위에서 말한 기도와 말씀, 교제와 전도보다 앞서지 않는다. 웨슬리는 기도와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사회봉사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고 본받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다. 웨슬리가 기도하고 성경보고 교제하고 전도한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이다. 둘째, 웨슬리의 사역과 훈련과 열매의 배후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지 않았더라도 웨슬리는 항상 성령을 인정하고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살았다. 마지막으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현재의 모습은 웨슬리가 살았던 시대와 너무나 다르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적용이라고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우리도 웨슬리를 통해 그 모습을 닮아 복음 전도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여야 한다.

본 논문의 내용은 크게 6장으로 나누고 있다. 먼저 제 I 장 서론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 연구의 목적을 밝힌 후 연구방법과 내용의 주제를 제시할 것이다.

제 II 장은 웨슬리와 기도이다. 웨슬리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웨슬리의 기도의 대한 그의 신학을 연구하고 그의 견해를 저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웨슬리가 실제로 전도자로서 기도의 삶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연구하려고 한다.

제 III 장은 웨슬리와 말씀이다. 오직 한 책의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말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였고, 성경을 어떻게 읽었으며,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을 어떻게 순종하였으며 변화되기 위해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 IV 장은 웨슬리와 교제이다. 웨슬리가 경험한 소그룹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그 소그룹 가운데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웨슬리가 후에 소그룹을 어떻게 활용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전도자를 위한 훈련에 적용하

10) Ibid.

려고 한다.

제 V 장은 웨슬리와 전도이다.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웨슬리가 어떻게 복음적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그의 전기를 통해 살펴보고, 어떻게 해서 그 뜨거운 마음이 식지 않고 생이 다할 때까지 불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지, 전도의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 VI 장은 결론이다.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비평할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복음전도의 현장과 개인에게 적용하려고 한다.

II. 웨슬리와 기도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그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눅 3: 21), 제자들을 택하실 때(눅 6: 12), 오천 명을 먹이시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요 11: 41-42),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눅 22:39-44).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기 위해 기도에 의지하셨다. 예수께서 기도를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여기셨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삶 전체의 근본적인 기초요 원동력이 되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일치하는 길로서 기도는 영적 생명의 호흡을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 임재를 체험하는 통로인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전도자는 복음전도를 위해서 기도에 대한 바른 신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기도의 신학이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전도자는 기도의 신학의 정립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해야 한다. 복음전도와 기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도자는 매일, 전심으로 자신과 복음 전도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A. 기도의 신학

웨슬리는 먼저 그의 설교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의 위대한 특권"에서 기도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다.¹¹⁾ 그는 기도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호흡, 즉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받아들이고 다시 돌려 내쉬는 지속적인 상관 작용의 관계로 보았다.

다시 말하면 웨슬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성령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감지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열린다고 보았다. 웨슬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거듭난 사

11) John Wesley, *Works of John Wesley*, vol. 5, Hendrickson Publishers 편집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1991), 305-16. 이후로는 *Works*로 인용함.

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 혹은 숨이 즉시 새로 태어난 영혼 속에 불어넣어져서 호흡하게 됩니다. 그 숨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믿음으로 그 숨결을 부단히 받아들이는 것처럼, 사랑과 기도와 찬미로 부단히 다시 돌려 드리게 됩니다. 사랑과 찬미와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모든 영혼의 숨이기 때문입니다.¹²⁾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영적 호흡으로 인하여 영적 생명은 유지될 뿐만 아니라 영적 능력과 활동과 감각과 함께 날마다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먼저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은혜가 경험하고 이에 대하여 우리 영이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이러한 상호작용이 있을 때 영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웨슬리는 "기도란 신자의 생활방식이고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였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편이고 신자는 쉬지 않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만큼 하나님의 현존을 즐거워한다. "기도는 신자의 영적 생명의 호흡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느 때나 모든 장소에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드리워지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실로 그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살전5:16). 언제나 '주여, 내 입은 소리를 내지 않아도 당신께 향하여 있어 잠잠한 중에 내가 당신께 말하나다'하고 마음에서 외칩니다. 그의 마음은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 무엇도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며, 더군다나 중단시키지는 더욱 못합니다. 혼자 있거나 누구와 함께 있거나 한가한 때나 일할 때, 또는 이야기할 때 그의 마음은 늘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자리에 눕든지 일어나든지 그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는 영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며, 어디서나 그 보이지 않는 분임을 보면서 줄곧 하나님과 동행합니다(히 11:27).¹³⁾

웨슬리는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여러 비유와 사도 바울의 말씀이 기도의 신학

12) Ibid., 308.

13) 요한 웨슬리, 『웨슬리의 기독교의 완전성에 대한 해설』 조종남 역 (서울: 한국복음문서간행사, 1996), 20.

을 잘 예증한다고 확신하였다. 웨슬리는 “은혜의 수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을 기도의 방법으로 대망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 열쇠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을 제시하였다(마 7:7).¹⁴⁾

여기서 우리는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지시되고 있는 바, 매우 값비싼 진주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혹은 받는 수단으로서 구하라고, 발견하기 위하여 찾으라고, 또한 만일 우리가 그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두드리고 구하고 찾아보는 일을 계속하여만 합니다.¹⁵⁾

웨슬리는 이어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마 7:9-11).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를 웨슬리는 설명하였다. 구하는 사람들, 곧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기도의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명령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과 동시에 성령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다.¹⁶⁾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이며 이것은 모든 좋은 선물을 포함하는 선물이다.¹⁷⁾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웨슬리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강청기도를 설명하였다(눅 11:5). 친구라는 이유로서는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강청함을 인해 일어나서 친구의 부탁을 들어 주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전혀 주어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특별히 밤중에 라는 말은 가장 부적당한 시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데 부적당한 시기가 없다고 웨슬리는 설명하고 있다.¹⁸⁾

14) *Works*, 5:269.

15) *Ibid.*, 270.

16) *Ibid.*, 271.

17) 존 웨슬리, 『웨슬레 성서주해』 로저 웨날스 편집, 조종남 역 (서울: 기성출판부, 2000), 471.

18) *Ibid.*

은밀한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대망해야 한다(마 6:6). 뿐만 아니라 공중 기도나 은밀한 기도는 거기에 부가된 축복과 관계가 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1:5)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지시가 아니다. 그들은 용서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받기 원하는 자는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믿음은 기도의 필수요건이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무의미하고 형식적이다.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기를 원한다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은밀한 기도는 은밀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과 분산된 것들을 향해 열린 문을 닫은 후에, 마음을 모아 그의 거룩하신 현존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의미 없는 말로 중언부언하는 것보다는 은밀한 소원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기꺼이 받을 마음을 가져야 한다. 즉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¹⁹⁾

웨슬리의 기도의 기초와 목표에 대한 가르침은 그의 “산상수훈 설교 6”에서 찾아볼 수 있다.²⁰⁾ 여기서 그는 먼저 기도의 목표로서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 순결한 의도와 정서를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기도가 단지 한 시점에 국한되는 행위가 아니라 거룩한 삶의 전체적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웨슬리의 기도의 특징은 거룩한 하나님과 열린 교제와 일치를 목적으로 하여 계속 펼쳐지는 신자들의 거룩한 사랑의 삶, 성화의 과정 자체이기 때문에 ‘성화의 기도’라고도 말한다.²¹⁾

19) Ibid., 348.

20) *Works*, 5:417-34.

따라서 우리는 기도로 간청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며, 그것은 또한 기도의 목적과 관계되어 있다. 기도는 어떤 인간적 보상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찬미하기 위해서 드러져야 한다. 웨슬리는 이 점에서 기도가 순수해야 하며, 그 동기와 의도가 합당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

웨슬리는 기도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위선자들을 본받지 말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위선과 불성실은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적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의미한 말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무의미한 말이나 빈 말을 길게 늘어놓으면 응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미가 없는 말의 반복이었다.

중언부언에 대하여 웨슬리는 다시 설명하였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의미 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만을 해야 한다. 빈말과 믿음이 없는 말을 반복하는 기도는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기도로 경계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기도는 흔히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만 종교를 욕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참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말은 하나의 거룩한 소원을 아뢰는 말과 동등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가장 훌륭한 기도라 할지라도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가 아니면 그것은 단지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불과하다.”²¹⁾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의 이름을 수없이 반복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가운데도, 기도의 내용에 아무런 느낌이 없이 다만 기도의 염주를 세는 것은 무의미하다. 뿐만 아니라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미신적이며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것은 사람의 청송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없고 열매도 없다.²²⁾

21) 이후정, 『성화의 길-오늘을 위한 웨슬리의 영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177.

22) 웨슬리, 『웨슬레 성서주해』, 436.

23) *Works*, 5:421.

웨슬리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라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세 번째 기도의 장애물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것은 낙심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셨다.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매일 찾아와 재판관을 성가시게 하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우리가 기도라는 수단으로 하나님께 구하였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웨슬리가 말하는 또 다른 기도의 장애물은 기도를 게을리 하는 것이다. 개인 기도에 대한 결핍은 어떤 다른 의식으로도 보충할 수 없다. 개인기도에 대한 게으름은 신자들로 하여금 광야의 상태가 되게 하여 믿음과 사랑과 성령으로 인한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다.²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거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직장이나 교우관계, 취미생활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더욱더 하나님과 단절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²⁵⁾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해설하면서 웨슬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 드리는 것(lift up)”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의 기도의 목적이 본질적으로 은밀한 중에 우리 마음과 영혼을 들어 올리고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하나님과 함께 의사소통 하려는 목적을 갖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만 올려 드리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한다.”²⁶⁾

웨슬리는 이교도들을 본받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고 계신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깨우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그러한 부족한 것들을 더욱 깊이 느끼게 하는 것과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지

24) *Works*, 6:96-110.

25) *Ibid.*, 100.

26) *Ibid.*, 5:420.

속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움직이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선한 것들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케 하는 것이다.²⁷⁾

웨슬리는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우리 마음속에 준비하는 일이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일이며 우리가 구하는 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일이며, 우리의 부족함을 깊이 느끼고 축복을 받을 때 까지 끝까지 매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²⁸⁾

웨슬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며 신자를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장케하는 은혜의 수단이다. 또 기도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얻는데 필수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자의 생활에서 영성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²⁹⁾

웨슬리는 가장 훌륭하고 모범적인 기도로 주기도문을 제시하였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질과 목적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기도의 모델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알고 계셨다. 즉 예수님은 무슨 소원과 어떤 기도가 가장 기쁘시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셨다. 이는 우리의 현실적인 욕구를 다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의 정당한 욕구를 모두 표현하는 기도 중 가장 완전하고 보편적인 기도이다. 또한 주기도문은 우리들의 기도의 완전한 지침이며, 이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들의 신앙 훈련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³⁰⁾

웨슬리는 주기도문을 해설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포괄적인 형태로 주어진 기도의 모범을 따를 것인지를 설명하였다.³¹⁾ 주기도문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27) Ibid., 422.

28) 존 웨슬리, “신약성서주해,”(I) 『웨슬리총서』 5권, 유동식 김용옥 공역 (서울: 유니온출판사, 1983), 48.

29)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서울: 도서출판 진향, 2000), 81.

30) *Works*, 5:422.

서두와 기원과 송영 또는 결론이다. 서두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기도의 일반적인 기초이다. 우리가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한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또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시해 주고 있다.³²⁾

주기도문의 기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 다음은 우리의 필요 세 가지를 기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우리의 필요는 육적인 필요, 용서의 기도, 영적 필요이다.³³⁾ 여기에서도 기도의 장애물을 가르쳐 주고 있다. 바로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다.

주기도문의 결론은 송영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속성과 활동을 간추려서 인정하고 송축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송영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나라의 위대성, 영원부터 영원까지 미칠 그의 활동을 인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 기도는 참되고 온전한 의미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표시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을 가장 첫째 되고, 간절한 소망으로 삼는 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바라면서 이 세상에서 그의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그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했듯이 자신의 죄를 사함 받고 성결케 되는 것이었다.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를 모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사용하도록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것이다.³⁴⁾

기도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웨슬리는 『일주일의 매일을 위한 기도 양식

31) Ibid., 341.

32) 이후정, 『성화의 길-오늘을 위한 웨슬리의 영성』, 182.

33) 홍성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서울: 도서출판세복, 1998), 163.

34) 웨슬리, 『웨슬레 성서주해』, 471.

들 모음』(A Collection of Forms of Prayer, for everyday in the week)속에서 우선 기도는 자기포기에서 시작되니,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주를 좇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포기는 자연히 우리를 하나님께 헌신하여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데로 인도하며, 자기 부인은 결국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는 제자의 삶인 완전을 목표로한다.³⁵⁾

여기서 우리는 웨슬리의 기도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삶을 추구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떠한 자기중심적 기도도 결국 열광주의에 빠지게 되며, 교만의 덫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³⁶⁾

우리는 이제 웨슬리의 기도 신학을 알 수 있는 『웨슬레의 기독교자의 완전에 대한 해설』로 눈을 돌리려고 한다. 이 책에서 기도에 합당한 목적과 역할, 기도의 본성과 효과, 성결의 삶인 기도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있다.³⁷⁾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어 역사하십니다. 기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자신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거듭났다고 하는(이런 예는 극히 드물지만) 자들에게도, 그를 위한 다른 사람의 기도가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 영혼이 쟁취하는 새로운 승리는 모두 새로운 기도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³⁸⁾

기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도는 다른 사람들과의 기도와 연합할 때 거듭나게 하는 일까지 만들어 낸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이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창조주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기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35) *Works*, 11:232.

36) *Ibid.*

37) 마조리 수하키, “기도의 완전,” 『웨슬리 신학 다시보기』 랜디매덕스 엮음. 이후정 역 (서울: 기독교 대한감리회홍보출판국, 2000), 61-79.를 참고하라.

38) 웨슬리, 『웨슬레의 기독교자의 완전에 대한 해설』, 126.

초청하셨다.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나 웨슬리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에 인간을 동반자로 포함시키고 있음을 깨달았다. 또 다른 본문도 이러한 메시지를 발전시키고 있다.

비록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그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기도와 가르침과 성결함에 결부시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³⁹⁾

여기서 웨슬리는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이 사람들의 기도와 가르침과 성결한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세 가지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다. 모두 공동체로 연결시켜 주고 있다. 공동체의 기도와 공동체의 가르침, 그로 인한 공동체의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며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공동체는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준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도 연결시켜 준다. 중보기도란 이웃의 필요를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다. 우리가 타인의 죄도 우리의 것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이 점을 제시하고 있다. “어떠한 사태가 닥쳐오든지 조용히 감수해야 합니다. 자타의 결함을 조용히 참고, 그것들을 은밀한 기도로, 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조용히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⁴⁰⁾ 웨슬리는 또 권면하고 있다.

마음이 불안스러울 때마다 우리는 물러나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빛이 역사하도록 하고, 결과의 성공여부를 따질 것 없이 우리는 결단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아무리 큰 시험을 당해도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넉넉히 이길 수 있기에 마음에 확신과 평강을 가지고 승리하라.⁴¹⁾

39) Ibid., 123.

40) Ibid., 124.

41) Ibid., 127.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로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그분께 드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중보대상자를 하나님께 기도로 내어드리며,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사람과 계속적으로 만남을 갖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⁴²⁾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사랑의 첫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그 다음 직무는 남들의 결함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합니다.”⁴³⁾ 우리의 가정이 중보의 삶을 사는데 얼마나 중요한 지를 강조하고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몸이 공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듯이, 기도가 없이는 잠시도 존속할 수 없다는 필요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순간이라도 지속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든지, 그에게 말씀드리든지, 그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고난을 받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밖에는 다른 목적이 없고 그를 기쁘시게 하려는 것 외에 다른 소원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은 제 마음대로 가감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 그것이 먹는 일이나 자는 일까지라도 모두가 기도입니다.⁴⁴⁾

이어지는 위 본문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는 자는 결국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고 인격으로 생명체로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고 경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습관이다.

끊임없는 기도가 습관처럼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을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고

42) 수하키, "기도의 완전," 67.

43) 웨슬리, 『웨슬레의 기독교의 완전에 대한 해설』, 126.

44) Ibid., 127.

거룩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다. 이것은 웨슬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서 말하는 핵심이다. 이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호흡과도 같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 곧 먹는 것과 자는 일까지도 기도가 될 수 있다. 웨슬리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기도를 실천하였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말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고 하는 질문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실천의 문제이다.⁴⁵⁾ 우리의 모든 사고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며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 웨슬리가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우리 삶의 큰 차이를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되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자라나게 된다. 결국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빛을 발하게 된다.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 있어야 하고, 가장 거룩한 이들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집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이 집에서 기도하며 마음 밑바닥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나는 언제나 기도하기 때문에 사적인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해놓을 필요가 없다.⁴⁶⁾

웨슬리가 말하는 기도시간은 개인적이기도 하고 공동적이기도 하다. 우리의 기도는 일상생활로 훈련되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 쉽게 분주한 일정으로 채워져 버리고 말 것이다. 기도시간보다 더 끈질기게 시간을 요구하는 무엇인가가 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웨슬리는 그 어떠한 것도 매일의 기도시간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습관을 바꿀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개인기도를 위해 특별히 부름 받았지만 이것이 결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의 기도와 분리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45) 수하키, “기도의 완전,” 69.

46) 웨슬리, 『웨슬레의 기독교인의 완전에 대한 해설』, 128-29.

것이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참기도를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오해에 빠져있기도 하다. 이것이 중보기도이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지체로서의 구체적인 기도행위로 귀결되는 것이다.

항상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해야 합니다…….자선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순간에 실행하고 둘째로 실행하자마자 물러나서 겸손한 감사로써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다면 바로 행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둘째, 이런 일에 선한 성격 그것 때문에 생기는 위험한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셋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연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이제까지 받은 모든 은혜와 행한 모든 선한 일과 함께 풍요하여 집니다……. 선행이 마지막 완전을 받는 것은 말하자면 그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잃는 순간입니다.⁴⁷⁾

웨슬리는 기도의 삶이 선행의 삶과 분리될 수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웨슬리에게 있어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다. “신앙의 중심원리 중의 하나는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 우리는 이웃에게 봉사함으로써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 사랑을 마치 앞에 계신 자기에게 해 드린 것처럼 받아주십니다.”⁴⁸⁾

기도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가시키며, 또 이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 행복해지기를 갈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단지 기도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아니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향한 사랑의 행위에서도 그 표현을 찾아야 한다. 기도는 이러한 사랑을 행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동기를 부여한다.⁴⁹⁾

웨슬리는 이어서 모든 선행보다 기도가 앞서야 함을 강조하였다. 우리가 행한

47) Ibid., 129-31.

48) Ibid., 130.

49) 수하키, “기도의 완전,” 73.

선행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보다 선행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행위는 일종의 기도가 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기도에 관하여 웨슬리에게서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감사와 하나님과 연합이다. 궁극적으로 웨슬리가 말하는 기도의 도달점이다.

바다는 하나님과 성령의 충만하심에 대한 아주 좋은 상징입니다. 모든 넷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의인들의 몸과 영혼도 선한 행실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품에 안기어, 그의 영원한 안식에서 살게 됩니다. 50)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선행의 원리이자 목적입니다. 이 선행은 그 영혼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 존재와 온갖 은혜 및 업적과 아울러 깊은 바다에 빠지듯이 하나님 안에 던져 넣게 하는 감사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치 강들이 제게 있는 물을 모두 쏟아 부어 제 속을 비우듯이 그 영혼이 선행들을 쏟아서 그 근원으로 돌려보내는 것 같은 감사입니다⁵¹⁾

감사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는 표현이고 받은 축복에 대한 열매이다. 이에 대하여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다.

감사는 진정한 기도의 본질적 요소이다. 감사는 진정한 기도와 분리할 수 없다. 모든 기도하는 자는 언제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린다. 평안할 때든지 괴로울 때든지 번영할 때든지 역경 중에 있든지 어떤 환경 중에서도 감사는 필수적이다. 그는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한다.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받아들인다. 어떠한 일을 선택하거나 거부하거나 하지 않고,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하니 않고,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따라 찬성하거나 불찬성할 따름이다.⁵²⁾

웨슬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위해 감사를 말하고 있다. 기도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를 자극한다. 그러나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

50) 웨슬리, 『웨슬레의 기독교자의 완전에 대한 해설』, 122.

51) Ibid., 132.

52) 웨슬리, 『웨슬레 성서주해』, 587.

을 맞추도록 한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웨슬리는 바다를 모든 강들을 포함하는 깊고 넓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 감사의 기도를 통해 바다처럼 넓고 깊은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표현하고 있다. 결국 웨슬리의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성결함에 있다. 따라서 그의 기도 신학은 성화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

B. 기도의 삶

이제 웨슬리의 기도가 지닌 규칙적인 실천의 차원을 살펴보려고 한다. 웨슬리는 기도에 대하여 연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생 기도하였던 기도의 사람이다. 웨슬리는 기도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첫째, 웨슬리는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다. 웨슬리의 기도는 쓰여진 기도문을 통한 기도와 자유로운 기도 즉 구체적인 기도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그는 이 두가지를 잘 조화하여 기도시간을 보냈다. 웨슬리는 기도문을 사용함으로써 진정한 기도에 대한 이해와 표현을 풍성케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교회의 역사적 기도문들을 자세하게 살펴봄으로써 기도의 형태와 주요 주제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의 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영역들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기도문을 통해 교회 전반과 함께하는 공동체적 정신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웨슬리는 초기 감리교인들에게 자발적인 기도는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에 자유롭게 응답하는 것이 되게 하고, 기도문은 기도의 기초가 되게 하라고 주장하였다.⁵³⁾

웨슬리는 영국국교회의 성직자로서 정기적인 기도서인 “공동기도서”(The Book of Common Prayer)에 준하여 매일의 기도와 경건생활을 실천하였다. 그

53) 스티브 하퍼, 『웨슬리 전통에 있어서의 경건생활: 감리교 영성생활의 뿌리』 박인환 옮김 (서울: 성서연구사, 1995), 22.

는 매일 오전 9시와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문으로 기도하였다.

둘째, 웨슬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였다. 개인적인 기도는 복음 전도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의 기도의 삶은 규칙적이었다. 그는 아침과 저녁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므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았다. 웨슬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를 대신할 다른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매일 아침 4-5시 사이에 그리고 저녁 9-10시 사이에 기도하였다. 이 두 번의 기도는 웨슬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시간이었다. 웨슬리는 50년 이상이나 일찍 일어나고 저녁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었다.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웨슬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하루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다고 믿었다.

규칙은 영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다. 웨슬리는 그의 말년에 건강의 비결을 말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보다 못한 원인으로 60년동안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난 것과 50년동안 매일 아침 5시에 설교한 것을 들고 있다.⁵⁴⁾ 그만큼 웨슬리는 규칙주의자였음을 알 수 있고 그것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전도자로 만들었다.

셋째, 웨슬리는 하루 종일 기도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쉬임없이 기도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 기도가 호흡과 같은 것이어서 영혼의 신적 삶의 지속에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웨슬리는 기도가 삶의 전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찬양으로 기도했다. 그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기도 했다. 웨슬리는 소리를 내서 기도한 후에 5-7분 동안 묵상했다. 웨슬리는 경건의 습관을 내면적으로 길렀다. 웨슬리는 자기의 삶에 충실하며 동시에 기도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

넷째, 웨슬리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도했다. 이를 위해 그는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는 실행패턴을 정하고 기도하였다. 그는 일주일간 하루하루 특정한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였다.

웨슬리의 기도 패턴을 알 수 있는 좋은 예가 있다. 첫 옥스퍼드의 신성클럽에

54) *Works*, 4:471.

의해서 사용된 “체계적 자기 검토의 개요”(A Scheme of Self-Examination)를 들 수 있다.⁵⁵⁾ 여기서는 계속 조직적인 질문 형식을 통해 철저히 자신을 검토하는 것이다. 주일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단순성의 주제를 위하여 그 수단인 기도와 묵상을 들 수 있다.

그 중에 기도에 대한 질문들을 살펴보면 교회에서 참여하는 매일의 아침과 저녁기도가 강조되어 있으며, 개인적으로 세 번 매일 기도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웨슬리의 기도는 의도가 있으며, 진지하며, 열렬하게 드러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일의 성찰을 위한 대주제는 다음과 같다. 내가 말하거나 행동한 모든 것에 나는 단순하며 또 묵상했는가? 나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였는가? 예배드리러 갈 때와 나올 때에? 교회 안에서? 아침저녁으로 은밀하게 하였는가? 나는 적절하게 기도하였는가? 나는 그 날의 미덕을 위하여 적절하게 기도하였는가? 다시 말해서 나는 나갈 때와 들어올 때 그 미덕을 위하여 기도하였는가? 의도적으로,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하였는가? 나는 아홉시, 열두시, 그리고 세시에 기도문을 사용하였는가? 의도적으로,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나는 적절하게 묵상하였는가를 묻고 있다.⁵⁶⁾

월요일 성찰의 주제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고 대주제는 다음과 같다. 나는 선을 행함에 있어서 열심이었으며 또 적극적이었는가? 나는 나의 이웃이 미덕을 행하거나 즐거워 할 때 그와 같이 즐거워하였는가?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슬퍼하였으며, 그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위하여 슬퍼하였는가? 나는 그의 약점들을 동정으로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분노로 받아들였는가? 나는 그에게 불친절하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나의 모든 행위의 근원은 선한 의지였는가? 나는 중보를 적절히 하였는가를 진지하고 의도적으로 묻고 있다.⁵⁷⁾

55) *Works*, 11:609-12.

56) *Ibid.*, 609.

57) *Ibid.*, 610.

다음으로 웨슬리가 1733년에 출판한 “기도 형식의 모음: 일주일의 매일을 위하여”란 글에서 보여준 기도의 모본을 살펴볼 수 있다.⁵⁸⁾ 이 책은 일주일 간 하루하루 특정한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였다. 그 글의 서언에서 웨슬리는 이렇게 기도집을 내놓는 의도는 신자들의 영성 생활에 형식을 제공함으로써 초대교회의 사도 시대와 교부 시대로부터 전해 온바 기본적인 기도, 즉 탄원, 간구, 감사, 도고(중보기도)등을 제시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웨슬리는 기쁨, 슬픔, 동정심, 관심, 신뢰 등의 감정의 모든 범위를 표현했다.⁵⁹⁾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웨슬리가 기도의 틀을 체계적으로 세우기 위해 다양한 형식을 기도했으며 역사적인 기독교, 특별히 자신이 속한 영국 교회의 기도 패턴을 따름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⁶⁰⁾

이 기도집은 웨슬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문을 읽고 연구하고 사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문을 수집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란 제레미 테일러(Jeremy Taylor)나 윌리엄 로(William Law)와 같이 잘 알려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명의 동료들이기도 하였다. 웨슬리는 그들의 기도문을 완전히 복사하거나 짧게 정리했다.⁶¹⁾

그 기도의 원리는 매일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목적으로 하는데 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위해 제자로서, 전도자로서 살아가는데도 기도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원리를 기초로 하여 기도의 형식에는 교회의 교리가 그 뼈대를 이루고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웨슬리는 한 주일동안 기도하면서 그에 앞서 자신을 돌아 볼만한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질문에는 일반

58) *Works*, 11:232-77.

59) *Ibid.*

60) *Ibid.*

61) 하퍼, 『감리교 영성생활의 뿌리』, 27.

적인 것과 특별한 것이 있다. 주일 저녁기도에는 그리스도인이 저녁 경건회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일반적인 질문들이 있다. 하루를 생활하는 동안 얼마나 기도의 삶을 주의 깊게 실천했으며, 그 결과 기도를 통한 어떠한 영적 진보나 덕을 쌓는 행실이 있었는지 묻는 것이다.

월요일 아침의 기도문 서두에는 매일 아침에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질문이 나온다. “나는 하나님을 처음과 마지막으로 생각했는가? 나는 지난밤에 잠자리에 든 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자신을 검토했는가? 나는 이 날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며 내 소명에 따른 사업을 부지런히 하기로 결심했는가?” 이어서 월요일 저녁에는 이웃 사랑에 관한 특수한 질문들이 나오는데, 얼마만큼 이웃을 섬기고 자비를 행하고 선을 베풀었는지를 자성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화요일은 겸손, 수요일은 금욕, 목요일은 인종(忍從), 금요일은 금욕 그리고 토요일은 감사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⁶²⁾

개인을 위한 기도

(수요일 아침)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당신의 얼굴 빛 안에서 영원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주께서 지난밤도 저를 지켜 주시며, 오늘 하루도 당신의 권능으로 살게 하시나이다. 전능하신 당신의 섭리로 보호하심에 주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겸손히 기도하오니, 나의 사는 날 동안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의 가는 길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나의 영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며 사랑하오니 나를 양육하시고, 구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을 주옵소서. 또한 주 예수의 날에 나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성품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만을 기쁘게 하고, 우리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주께로 나아가오니, 나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당신을 기쁘게 못하는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주의 모든 백성들이 하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그들이 평생 동안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자신들의 소명을

62) Ibid., 99.

잇었거나 가벼이 여긴다면,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이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따라서 ‘그들을 흑암에서 부르시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 나의 기도가 당신의 사랑의 아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인도되게 하시고, 성령의 일치 속에서 이제로부터 영원히 사랑과 순종을 당신께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목요일 저녁)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께 숨길 수 없나이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을 모르고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니 부끄럽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셔서 자비를 베풀어주옵소서. 오,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오니, 이제 이후로 평생 동안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저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온전하심과 주님의 행사와 주님의 뜻만을 알기 원하나이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저 또한 원하게 하옵소서. 제가 모든 일에서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나의 감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이 되어 주시고, 나의 기쁨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그 무엇도 주님의 자리를 빼앗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그것을 나도 미워하게 하소서.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몸이 거룩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몸에 거하시는 당신께 합당하게 하옵소서. 나의 몸을 너무 태만하게 하지도 않고 너무 고단하게 사용하지도 않게 하시어, 사는 날 동안 건강하고, 생기 있고, 활력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의 육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봉사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나 자신과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 자신은 당신 없이는 아무 것도 아니며, 당신 없이는 아무 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자신과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기업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은총을 부어 주소서. 고난 속에서 몸과 마음으로 일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특히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로하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도우소서. 모든 영광과 나라와 권세가 이제부터 영원히 주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아멘.⁶³⁾

63)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85.

또한 웨슬리의 기도 형식에는 “가정을 위한 기도 모음”(A Collection of Prayers for Families)이 있다.⁶⁴⁾ 가정을 위한 기도집은 사실상 가족기도와 개인 기도에 사용하도록 만든 것으로서 감리교도들의 증가에 따라서 이러한 기도집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이 기도집 역시 위의 일반적인 기도 형식처럼 매일 아침저녁으로 나누어져 있고 한 주간 전체로 되어 있다. 매일, 한 주간 한 주간,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처럼 기도의 리듬이 있다. 초기 감리교인들은 이와 같이 기도문과 자유로운 기도를 균형 있게 실천하였다. 웨슬리는 항상 의도적으로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기를 훈련했다.

(주일아침)

오늘 하루를 경건한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안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희망과 영원한 위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합니다. 이 땅의 사소한 것들로부터 마음을 들어 위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잃게 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매일 주님을 구하고, 앞서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당신의 보배로운 보혈로 우리들을 구속하셨음에도 우리들이 당신을 거역한 것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만물 가운데 있는 주님의 뜻에 우리가 일치하고, 우리의 영혼과 몸이 주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모든 은혜로운 약속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수천의 금과 은보다 귀하오니 영원히 우리 마음의 위로와 기쁨이 되소서. 지난밤도 우리를 자비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고, 베풀어주신 변함없는 선하심이 우리에게 복이 되나이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보호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인도하시고 도우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자비를 기다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옵소서. 모든 생각과 우리 마음의 계획들, 우리의 감정과 성격과 모든 행동이 당신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살피시고 감찰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소서. 우리 안에 사악함이 있는지 살피시고,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보다 나으므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아멘.

64) *Works*, 11:278-307.

(주일저녁)

주님의 위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입니다. 주님의 선하심 또한 우리에게 복되며, 이를 마음에 항상 느낍니다. 주님은 거룩한 생각으로 우리를 감화시키시고, 사랑과 기쁨으로 채우시나니, 곧 나타날 영광을 평강 가운데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게 하시고, 주의 백성에게 약속된 영원한 안식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 뜻대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주시으며,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모든 일에 있어 주님의 거룩한 뜻으로 다스림을 받게 하소서. 주님의 친절하심과 우리를 보살피시는 은혜를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 마음이 순결하게 하소서. 겸손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마땅히 우리가 생각할 것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사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이를 축복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게 하소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어 변함없이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무 염려하지 않고 또 무엇이든 근심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아멘.⁶⁵⁾

끝으로 기도 형식에 포함된 것은 “아이들을 위한 기도문”(Prayers for Children)이다.⁶⁶⁾ 그 서문에서 웨슬리는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적어도 매일 아침저녁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하여 권고한다. 하나님의 자비와 복 주심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보시고 그의 생각을 다 아시므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권면이 이어서 나오고 있다. ⁶⁷⁾

(서문)

사랑하는 아이야,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꼭 지켜야 한다.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입으로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시고 너의 생각을 알고

65)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87.

66) *Works*, 11:308-26.

67) *Ibid.*

게시므로 입술로만 기도하지 말 것이며, 마음을 다해 기도하여라. 헛된 것을 구하지 않도록 하고 나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만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이란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구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들으시고 네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에게 베풀어주실 것이다.

(월요일 아침)

오,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선하심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저를 지으시고, 지켜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시는 모든 복에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을 지켜 주시고,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고, 모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항상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동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과 욕심과 악마의 유혹을 이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정결한 영혼과 마음으로 은혜로우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영혼과 몸을 상하게 하는 모든 일들에서 나를 건지시고, 용서와 평강을 내려주시사,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언제까지나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의 이름으로. 아멘.

‘주의 기도’

(수요일 저녁)

모든 사람들을 지으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모든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주시고, 위험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당신의 크신 은혜가운데서 언제나 필요한 모든 복을 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나의 잘못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우나, 주님은 자비하시고 용서하심이 풍성하시니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주님 저는 자꾸만 죄에 빠지고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의 몸과 영혼을 지켜 주셔서 내가 주님께 거룩하고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변한다 해도 나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자라게 하소서. 주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내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

래 나를 숨기시고, 이 세상의 악에서 나를 지켜 주시고, 마침내는 완전한 축복과 영원한 사랑을 얻게 하옵소서. 이 밤 주님 손에 나의 영혼과 몸을 맡기나이다. 천사들로 나를 보호하게 하시고, 또 내일을 위하여 평안한 안식을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며, 그때까지 주님이 명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모든 일을 기쁨으로 다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주의 이름으로. 아멘.⁶⁸⁾

우리가 이상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웨슬리는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매일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질문들과 이웃사랑에 대한 객관적인 질문들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기도의 형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었다. 기도와 실천의 조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웨슬리는 때로 짧게 그리고 크게 소리 내어 기도했다. “오 나의 하나님이지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오 주여 내 마음을 높이 들리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등 큰소리로 짧게 기도를 했다.⁶⁹⁾

여섯 번째, 웨슬리에게 있어서 성경을 읽거나 경건서적을 읽는 것은 진지한 기도의 행위였다. 그에게는 읽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과 동일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기도와 독서는 웨슬리의 일상적인 경건의 습관이었다. 그는 1752년에 자신과 감리교인들의 경건의 독서를 위해 『기독교문고』(Christian Library)를 출판하였다. 이것은 고대 교회로부터 당대까지의 모든 탁월한 경건의 작품들을 요약하여 전 50권으로 만든 문고이다. 이것은 신자의 기도와 경건의 자료로 고안된 것이다.⁷⁰⁾

일곱 번째, 웨슬리는 금식기도를 하였다. 그는 옥스퍼드 학생 때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 또는 절식을 일평생 실천하였다. 초기 감리교인들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웨슬리 사후에는 금요일에만 금식을 실천하였다. 금식은 기도를

68)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89.

69) Ibid., 92.

70) Ibid.

지원하는 은혜의 수단으로 중요한 경건생활의 전통이었다.

웨슬리는 금식과 함께 열렬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강조하였다. 금식기도를 통해 온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가 있고 기도의 범위를 넓힐 수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기도에 도움을 주는 금식은 정결함이라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진지함, 양심의 진실성과 지각의 부드러움, 세상에 대하여 죽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거룩한 천국의 성품들을 확보하고 증가시키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⁷¹⁾

여덟 번째, 웨슬리는 철야기도(Watch-Night Service)를 하였다. 웨슬리는 1738년에 모라비안 지역을 방문해서 체류하는 동안 그들의 철야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본적이 있었다. 그러나 초기 감리교인들의 철야기도회는 1742년 킹스우드 학교에서 광부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웨슬리는 “감리교인들에 대한 평이한 해설”(A Plain account of The People called Methodists)에서 철야기도회의 발생과 발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⁷²⁾

초대교회 교인들의 관습과 비교해 본 후 발전시키고 보완하였다. 그는 만월 가까운 금요일 밤에 철야기도회에 참여하여 설교로 지원하겠다고 광고했으며 수많은 교인들이 모여 기도와 찬양과 간증으로 함께 밤을 지새웠다. 웨슬리는 곧 이것을 매월 1회 실시하도록 지원했고 브리스톨, 런던, 뉴캐슬등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철야기도회를 통해 교인들은 개방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마음껏 개인기도, 중보기도, 협력기도를 할 수 있었고 자발적으로 기쁨에 넘치는 찬양을 하고 자유로운 간증으로서의 서로의 영적 경험을 나눌 수 있었다. 감리교인들은 이 모임에서 넘치는 축복을 경험한다고 웨슬리는 설명했다.⁷³⁾

71) *Works*, 5:435-52.

72) *Ibid.*, 8:278-300.

73) *Ibid.*, 287.

III. 웨슬리와 말씀

웨슬리는 윌리엄 로의 『경건과 거룩한 삶으로의 진지한 초청』(A Serious Call to a Devout and Holy Life)을 1729년에 읽은 후에야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⁷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1729년 나는 성경을 진리의 유일무이한 표준이요, 순수한 신앙의 유일한 규범으로 믿고 읽을 뿐 아니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⁷⁵⁾

이 책은 웨슬리에게 성경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그때부터 그는 호모 유니우스 리브리(*homo unius libri*), 곧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그는 기독교자의 완전을 추구하기 위해 1725년 이래 줄곧 꾀대로 삼았고 1930년부터는 더욱더 집중해 왔다.⁷⁶⁾ 웨슬리는 선교사로 가면서도 성경을 붙잡았고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하여도 성경을 붙잡았다. 뿐만 아니라 웨슬리는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잣대로 간주하였다.⁷⁷⁾

복음전도를 위해서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전도자가 열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열정은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이 바로 성경이다. 웨슬리는 자만과 열광주의를 주의하며 항상 성경을 통해 검토해볼 것을 당부하였다. 전도자 웨슬리는 전적으로 성경에 최고의 권위를 두었다. 이는 전통, 이성, 경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절대적인 권위를 두었다.

우리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축적하는 지식의 훈련과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변화의 훈련이 필요하다.⁷⁸⁾ 웨슬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개인경건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를 성화시키는데까지 나아갔다.

74) 홍성철, 『불타는 전도자 존 웨슬리』(서울: 도서출판 세복, 1999), 40.

75) *Works*, 11:429.

76) *Ibid.*, 436.

77) 홍성철, 『불타는 전도자 존 웨슬리』, 40.

78) _____, “영성훈련의 모델과 적용,” 29.

A. 지식의 훈련

웨슬리는 성경을 근면하게 읽었다. 그는 매일 같이 성서를 원어로 몇 시간씩 읽으면서 진지하게 연구했다. 그는 성서에 능통하고 있었다. 그가 쓴 글에는 그것이 편지였든, 논설이었든, 너무나 많은 성경 구절이 인용되어 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웨슬리의 설교는 성경 말씀을 근거하고 있다.

한 예로 웨슬리는 80여 페이지 밖에 안 되는 글 『웨슬리의 기독교의 완전성에 대한 해설』에서 성경 구절을 195회, 그리고 반복된 것을 합치면 248회나 인용하고 있다.⁷⁹⁾ 또 그의 설교, “성경적 기독교”(Scriptural Christianity)에서 그는 성경을 232곳을 직 간접적으로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도 우연히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⁸⁰⁾

웨슬리는 다양한 주제들의 책들을 광범위하게 읽었지만 그 자신은 항상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웨슬리가 비록 다양한 주제로 600여권의 책들을 간행하였지만, 성경 외에 어떤 다른 믿음이나 실행의 규범들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암송해야 한다. 웨슬리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 『은혜의 수단』에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⁸¹⁾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성경 탐구에 대하여 말할 때, 우선 성서가 주님을 증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성경을 찾아보는 목적이 그 속에서 주를 믿고 발견하는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⁸²⁾

그는 베뢰아 교인들을 예로 들면서 성경을 날마다 자세히 연구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복과 은혜를 주었는지 설명한다. 웨슬리는 성경을 탐구한다는 개념 속에 듣는 일과 읽는 일, 그리고 묵상하는 일을 포함시킨다. 나아가서 성경 탐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확증하며 증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⁸³⁾

79) 조종남, 『요한 웨슬레의 신학』 5쇄.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9), 42.

80) 홍성철, “영성훈련의 모델과 적용,” 25.

81) *Works*, 5:264-81.

82) *Ibid.*, 272.

동시에 웨슬리는 이처럼 성경을 탐구하는 것이 빛 속에 있는 신자들을 성숙시키는 수단이 될 뿐 만 아니라 믿지 않고 어둠에 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수단도 된다는 것을 베드로서⁸⁴⁾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⁸⁵⁾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경외하기를 배웠다. 웨슬리는 성경을 사랑하는 청교도적 성장배경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았다. 웨슬리는 『기독교 장서』(A Christian Library)의 서문에서 성경을 고귀하게 여기는 청교도들에 대한 평가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공경한다. 그들은 성경에 얼마나 능한지, 그들보다 앞서 갔던 어떤 사람들보다 뒤떨어지지 않으며, 그들을 뒤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들은 모든 것을 성경으로 입증한다. 그들은 간단없이 율법과 증언에 호소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든 것을 성경이라는 잣대에 재어 보지 않고는 만사를 쉽게 판단하지도 않는다.⁸⁶⁾

아버지 사무엘은 성경을 사랑했다. 그는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성경에 관련에 저술에도 몰두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어에도 능통하였다. 어머니 수잔나의 청교도적인 경건생활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었다. 그녀의 엄격한 시간표, 하나님 앞에서의 묵상과 자기 성찰을 위한 규칙적인 시간, 영적 일기의 기록, 안식일의엄수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생활 방법이었다. 수잔나의 엄격한 방법은 웨슬리에게 성경을 공부하고 규칙적으로 읽고 암송하게 하였다.⁸⁷⁾

1714년 차터 하우스 학교에 입학한 그는 가정에서 배운 교육을 학교생활에서 실습하려고 노력했다. 아침과 저녁으로 성경 읽기와 기도생활에 힘쓰면서 자신이 정한 3가지 목표, 즉 불량한 사람이 되지 말 것, 종교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호의를 가질 것, 성경 읽고 기도하며 교회에 출석할 것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

83) Ibid.

84) 베드로 전서 1:19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 이니라”

85) *Works*, 5:273.

86) 홍성철, 『불타는 전도자 존 웨슬리』, 40.

87) Ibid., 39.

력하며 차터 하우스의 시절을 보냈다.

1720년 옥스포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Christ Church College)에 입학한 그는 공부하면서 보다 철저히 경건한 생활을 하였다. 그는 기도를 개인적으로는 물론 공적으로 했으며 성경과 함께 기타 종교 서적들, 특히 신약성경 주석을 읽었다.⁸⁸⁾

1725년 그가 성직 안수(聖職 按手)를 받고 그 학교의 특별연구원으로 있을 때, 동생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와 친구들과 함께 신성 클럽(Holy Club)을 조직하고 이를 지도하였다. 그들은 함께 빈민굴과 교도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구제와 전도활동을 펴고 성경공부에 전념하였다. 후에 이 모임은 그들이 규칙적인 일과를 작성하여 실행함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규범주의자들(Methodists)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⁸⁹⁾

그러나 지금까지는 성경을 규범적으로만 읽었을 뿐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았다. 웨슬리는 1729년 『경건과 거룩한 삶으로의 진지한 초청』(A Serious Call to a Devout and Holy Life)을 읽은 후부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고 앞서 언급하였다.⁹⁰⁾ 이 책은 웨슬리에게 성경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그때부터 그는 호모 유니우스 리브리, 곧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웨슬리는 선교사로서 미국의 조지아로 가면서도, 선교사로서 사역하면서도 강하게 성경을 붙잡았다.⁹¹⁾ 1734년부터 1738년까지의 기간의 대부분을 그는 북미주의 선교사로 활동하였다. 2년 4개월 동안의 미국에서의 활동은 성결의 체험 없이 자신의 인간적인 열심만 가지고 일하였던 까닭에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북미주에서 선교활동의 실패를 통하여 웨슬리는 성결의 체험 없이 단순히 자신의 의지에 의한 선교의 열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몸소 경험하였고, 미국에서 선교 실패는 훗날 올더스게이트에서의 성결을 경험하는데 하나의 내적 요인

88) 송홍국, 『존 웨슬리의 생애』, 『존 웨슬리 총서』 4권, (서울: 신교출판사, 1976), 17,

89) Ibid., 24-31.

90) 홍성철, 『불타는 전도자 존 웨슬리』, 40.

91) Ibid., 32-40.

이 되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최고의 권위였다. 한때 그는 고전에 심취하여 성경과 같은 권위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웨슬리는 얼마 후 그의 실수를 인정하며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가 있다고 다시 깨닫게 되었다.⁹²⁾

웨슬리는 구원을 위한 진리를 성경 안에서 깨달았다. 웨슬리가 성경을 탐구한 것도 곧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웨슬리는 하나님 또는 구원의 길을 아는 최선의 길을 묻는 친구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는 모든 것이 한 책, 곧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할 일은 성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배운 모든 것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성서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⁹³⁾

웨슬리는 성결의 경험을 위해서 성경을 붙잡았다. 웨슬리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온전한 성결을 좇지 않는 것이 각종의 죄에 떨어지는 지름길이 된다고 기록하였다.⁹⁴⁾ 웨슬리는 이 교리가 성경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성 바울의 교리, 성 야고보의 교리, 성 베드로와 성 요한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교리이지 웨슬리의 교리가 아닙니다. 나는 가장 알아듣기 쉬운 말로 내가 그것을 어디에서 그리고 언제 발견했는지를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신구약에서 발견했습니다.⁹⁵⁾

성경은 웨슬리의 설교의 원천이다. 그래서 그의 보통의 언어는 성서적이었다. 구약보다는 신약을 더 사용했는데, 마태복음이 그의 가장 좋아하는 책이었고 그래서 그는 마태복음을 1362번이나 설교본문이나 인용구절로 사용했다. 두 번째는

92) *Works*, 1:104.

93) 조종남, 『요한 웨슬레의 신학』, 87.

94) 웨슬리, 『웨슬레 성서주해』, 608.

95) *Works*, 11:521.

히브리서로서 965번 사용했고, 요한복음이 870번, 누가복음을 853번, 고린도전서가 779번이다. 구약 중에서는 이사야서가 668번으로 제일 많고 시편이 624번, 예레미야서가 208번이다. 가장 많이 사용한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5절(190번), 고린도 후서 8장(133번), 에베소서 2장 8절(133번), 갈라디아서 6장 14절(129번), 마태복음 16장 26절(117번),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55장 7절(112번), 예레미야 8장 22절(102번), 이사야서 55장 6절(90번), 호세아 14장 4절(87번), 시편 141편 3절(72번)등이다.⁹⁶⁾

웨슬리의 성경 독서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그는 성경을 예배하는 자세로 읽었다. 즉 그는 경외심 속에서 급하지 않게,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질적인 목표를 가지고 집중하여 정성껏 읽었다. 웨슬리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사람들의 바쁜 일상에서 떠나 홀로 앉아 있을 때는 하나님만이 오직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가운데 나는 하늘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기 위해 성경을 펴서 읽는다.”⁹⁷⁾

그는 이른 아침과 저녁에 주로 성경을 읽었다. 이것은 웨슬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시간에 쫓기지 않으려는 목적 때문이었다. 이 시간들은 그가 읽은 성경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해 주었다. 웨슬리는 한 번 읽을 때 마다 보통 한 장씩 읽었다. 때로는 몇 절만 읽을 때도 있었다. 그는 조금 읽으면서도 그 의미를 찾아 깊이 묵상하였다. 이것은 웨슬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하나님과 만남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웨슬리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었다. 그는 영국 교회의 공동기도서의 매일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었다. 이 성경읽기표를 사용함으로 그는 일년 동안 구약은 한 번, 신약은 여러 번 읽게 된다. 이런 방법을 사용함으로 웨슬리는 성경을 아무렇게나 읽기보다는 전후 문맥을 살펴가며 읽을 수 있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의도”를 알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신구약 뿐만 아니라 외경을 읽음으로써 이런 사실을 예증하였다.

96)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192.

97) 하퍼, 『웨슬리 전통에 있어서의 경건생활: 감리교 영성생활의 뿌리』, 34.

그러나, 웨슬리가 성경을 경건하게 읽는 것이 단지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그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했다. 웨슬리는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과 영적 풍성함을 위해 읽는 것이 분리되진 않는다고 보았다.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통찰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또 하나의 영감이 라고 받아들였다. 웨슬리는 또한 성경 읽기에다 원어의 연구와 당시의 가장 좋은 연구 자료들을 첨가시켰다.⁹⁸⁾

웨슬리가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데에는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 그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영국국교회의 교구목사였다. 그의 청교도적 영향으로 영국국교회에 들어오면서 비국교도 곧 청교도의 훈련과 사상을 가지고 온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는 청교도들과 똑같이 성경을 사랑했고 따라서 그는 집중적인 성경연구와 성경과 관련된 저술에 몰두하였다.⁹⁹⁾

한 예를 들면, 그는 구약성경 중 욥기 주석을 썼는데, 히브리어 단어를 일일이 검토하는 등 철저한 연구의 결과를 출판한 200여 쪽의 방대한 저서였다.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물론 라틴어에 대한 그의 관심은 그의 아들 존 웨슬리에게도 영향을 주어 존도 그러한 언어들에 능통하였다. 존이 헬라어에 얼마나 유창하였느냐는 그의 저서 신약성경 주해에서 잘 반영되었다. ¹⁰⁰⁾

신약성서 주해는 1754년과 1755년 사이에 웨슬리가 몸이 아파 전도를 하지 못할 때 기록한 것이다. 그의 일기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6일인 일요일에 나는 신약성서 주해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몸이 약해서 여행이나 설교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책은 능히 읽고 쓸만한 건강이 있다. 나는 정기적으로 아침 기상 시간에 일어나 아침 5시부터 밤 9시까지 글쓰기를 계속했다.¹⁰¹⁾

웨슬리는 성경주해를 이용하여 지식을 넓히는 것도 유익하게 보았다. 여기에

98) Ibid., 35.

99) 홍성철, 『불타는 전도자 존 웨슬리』, 21.

100) Ibid.

101) *Works*, 2:352.

는 자신이 받는 영적 통찰력과 은혜도 중요하지만, 다른 신앙인들의 도움을 받아 더욱 풍성한 영성으로 나아가려는 겸손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영감으로 기록한 성서 기자들 이외에 누구의 작품도 참고하지 않고 내 마음에 생각되는 것을 꾸밈없이 쓰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기독교계의 위대한 빛인 벤겔리우스(Bengelius)에 친숙해지자 나는 내 계획을 완전히 변경하였다. 그의 저서인 신약성서 지침을 단순히 번역하기만 해도 신약성서에 대해 많은 책을 쓰는 것 보다 신앙에 더 도움이 되리라고 깊이 확신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훌륭한 주해 중 많은 부분을 번역했으며 단순히 비판적 연구에 관한 부분은 생략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간략하게 요약했다. 또한 나는 그가 제시해 준 고대 사본들과 그 번역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읽기들은 주저 없이 본문에 반영시켰다. 그의 방법을 좇아 나는 본문을 의미에 따라 길게, 혹은 짧게 끊으면서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에 따라 본문을 나누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점에서 이렇게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도움이 되었다. 102)

웨슬리의 신구약 성경의 주해서는 성경지식에 관한 자신의 관심을 입증하였다. 이 주해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책으로부터 인용한 것이긴 했지만 선택된 본문에 대한 웨슬리의 관점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는 “평범하고 무식한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자기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해를 썼다고 말했다. 그 주해들에는 일반적으로 철학적이거나 학문적인 용어들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주해들을 대충 읽어보아도 그 내용이 충실하고 유익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웨슬리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 주고 있다. “나는 성경을 그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읽고 있는가?” “나는 보다 더 큰 맥락 속에서 독립된 구절들을 볼 수 있도록 각 부분들을 충분히 넓게 읽는가?” “다른 사람들의 깨달음을 나의 성경공부에 첨가시키기 위해 도움자료들을 사용하는가?” “나는 내가 발견한 것을 표시하고 각주를 써놓고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웨슬리는 성경의 깊은 지식을 얻기 위해 체계적인 성경읽기를 하였다. 103)

102) 웨슬리, 『웨슬레 성서주해』, 427.

셋째, 웨슬리는 성경을 포괄적으로 읽었다. 그는 자기가 평생 동안 성경을 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양적으로 많이 읽으려 하지 않았다. 웨슬리는 독특한 자기의 방식으로 포괄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는 한 방법을 개발하였다. 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규칙적으로 읽고, 성경을 읽을 때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항상 신앙의 유추와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들 곧, 원죄, 이신득의, 신생, 성결 같은 교리들 간의 연결과 조화에 유의하여 읽기를 권면하였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성령의 교훈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경은 성경을 주신 바로 그 성령을 통하여서만 이해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성경읽기를 마칠 때에도 기도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읽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배운 것을 실행에 옮기려는 굳은 결심을 가져야 한다.¹⁰⁴⁾

B. 순종과 사회봉사의 훈련

변화의 훈련은 곧 순종의 훈련이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고와 삶을 비추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건 없이 굴복해야 한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동시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신다.¹⁰⁵⁾

웨슬리의 성경읽기는 변화 곧 성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고 난 후에 변화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그것이 사회봉사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런 변화를 위해 먼저 웨슬리는 개인적인 적용을 권면하고 있다.

103) 하퍼, 『감리교 영성생활의 뿌리』, 36.

104) 웨슬리, 『웨슬레 성서주해』, 22-3.

105) 홍성철, “영성훈련의 모델과 적용,” 29.

읽는 동안에도 가끔 멈추어 읽는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활에 관하여 검토해 본다면 유익할 것이다. 이와 같이하여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것을 발견할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케 되고 또 우리가 미치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될 때에는 겸손하게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읽는 가운데 빛을 받으면 그 즉시 그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것이다. 지체하지 말라. 무엇인가 결심한 것이 있으면 될 수 있는 데로 그 순간부터 실행에 옮기라. 이와 같이 함으로 너희는 읽는 그 말씀이 현재와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 것이다.¹⁰⁶⁾

웨슬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개인적인 적용과 관련해서 웨슬리는 사람들에게 읽기를 종종 중단하고 자기들이 읽고 있는 말씀으로 자신들의 마음과 삶을 살핀다면 유익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웨슬리는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이 참으로 오늘날과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했다.

동시에 웨슬리는 성경 읽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을 남들에게 가르치는 길을 찾았다. 웨슬리는 이러한 상호 교제와 대화를 통해 성경이 공동체적 삶으로 살아 나며, 겸손한 나눔 속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런 성경 읽기는 어떠한 강요나 지배보다는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 교통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교화하고 성장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웨슬리는 변화의 훈련을 위해 공동체를 강조하였다. 웨슬리는 모임에서 함께 성경을 읽고 사용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서 서로 서로 수정해주고 풍요케 해 주고, 서로가 경험하는 문제에 해답을 함께 구하였다. 특별히 신약성경은 웨슬리가 초기 감리교도들의 거룩한 삶을 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되었다.¹⁰⁷⁾

그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무릎 꿇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웨슬리는 총칙(General Rules)에서 초기 감리교인들에게

106) 웨슬리, 『웨슬레 성서주해』, 23.

107)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95.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지고 가르쳐지는 예배들에 충실하게 참석하라고 요구했다. 이 말은 교구 교회에서 드러지는 영국성공회 예배와 초기 감리교회 운동과 연관된 다양한 집회들, 즉 신도반, 속회, 선택자회 그리고 전도, 예배 등을 모두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또한 가족 경건모임에서 성경을 읽고 설명하는 일에 충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동생 찰스 웨슬리에 의해 찬송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¹⁰⁸⁾

신앙의 공동체는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훈련의 장이다. 다양한 부류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많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인격이 형성되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 속에서 부딪치고, 반성하면서 점진적으로 인격이 형성되어진다.¹⁰⁹⁾

웨슬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설교하였고 또 순종하였다. 그 후 그의 삶은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기 시작했다. 말씀 앞에 순종한 결과들이 웨슬리의 삶 속에서 나타났다. 그는 몸소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하였다. 웨슬리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한 첫 번째 사건은 복음을 깊이 깨닫고 반대와 저항에도 끝까지 전파한 것이었다.

웨슬리는 당시 개혁적이고 위험스런 교리하고 생각 되는 것을 설교하였다. 그것은 오직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다. 웨슬리는 가능한 한 생동적이고 실제적인 기독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람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고 보존하며 증진하는 것뿐이었다.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언급한다면 그것은 국가 특히 교회를 개혁하고 성서적 성결을 이 땅에 확장하는 것이었다. 그 후 그가 전적으로 확신한 것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그의 사랑에 완전히 의지하는 모든 남녀는 지옥과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었다.¹¹⁰⁾

웨슬리는 그가 설교한 교회에서 모두 배척을 받았다. 교회들은 그에게 문을 닫아 버렸고 그는 야외로 나가게 되었다. 웨슬리는 교회에서 배척을 당했지만 계

108) 하퍼, 『감리교 영성생활의 뿌리』, 39.

109) 홍성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 (서울: 도서출판 세복, 2004), 68.

110) 우드 스캐빙톤, 『존 웨슬리: 위대한 전도자』 김선도 역 (서울: 신교출판사, 1976), 360.

속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였기에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였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¹¹¹⁾

웨슬리는 항상 설교에서 참되고 성서적이며 체험적인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했다. 웨슬리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사람이다. 웨슬리는 실제 생활을 통해 그가 말하고 깨달은 것의 진실함을 보여 주었다. 그 진실함은 바로 선행이다. 선행은 구원의 외적 증거라고 여겼다. 웨슬리와 초기 감리교도들의 신앙은 모든 기회에 모든 힘을 다하여 선을 행하는 신앙이며, 감리교도들은 선행자들이었다. 웨슬리는 선행의 규칙을 만들어 평생 지키게 하였다.¹¹²⁾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모든 힘을 다하여 선을 행하라. 모든 처지에서 선을 행하라. 모든 장소에서 선을 행하라. 모든 시간에 선을 행하라.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네가 살아 있는 동안 모든 선을 행하라.¹¹³⁾

둘째, 웨슬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여 열매로 나타난 것은 구제운동이었다. 웨슬리는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했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전도했다. 웨슬리는 1741년 런던의 연합신도회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일용할 양식이 없으며, 일상 의복이 없으며, 자신들의 실수 없이 실직을 당했고, 병들고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힘을 다해 그들을 먹이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병자를 방문하였으나 나 홀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의복을 가져와 나눠 줍시다. 일주일에 1페니 또는 그 이상을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의 구제를 위해 줍시다.¹¹⁴⁾

또한 82세 되던 해 1785년 1월 추운 겨울에 자신이 실행한 구제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11) Ibid., 98.

112)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319.

113) Ibid., 319.

114) *Works*, 1:347.

이때쯤이면 언제나 우린 감리회의 가난한 교인들에게 석탄과 빵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지금 살펴보니 음식뿐 아니라 옷가지도 부족하였다. 그래서 이날로부터 나흘 동안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부터 입히기 위해 각 마을로 돌아다니며 2백 파운드를 모금하였다. 그러나 길마다 눈이 녹아 걷기가 힘들었고 발목까지 빠질 정도로 질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은 눈 녹은 물에 젖어 있었다. 토요일 저녁까진 그런대로 참고 견뎠으나 마침내 갑작스런 설사로 눕게 되었다.¹¹⁵⁾

셋째, 웨슬리의 순종의 모습은 돈의 사용에서도 알 수 있다. 돈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문제였다. 그는 설교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고 될 수 있는 데로 많이 주라고 가르쳤고 그것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구제사업을 위하여 웨슬리는 생활비를 절약하여 충당하였는데, 웨슬리는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최저 생활비를 제하고 그 잔액을 전부 구제 사업에 사용하였다. 그는 연봉 30파운드의 수입이 있을 때나, 60파운드, 90파운드, 100파운드의 수입이 있을 때나 생활비 28파운드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자선 사업에 썼다.¹¹⁶⁾

그는 자신이 쓰고 출판한 책의 판매를 통해 수입이 증가했지만 평생 동안 자신을 위해서는 1년에 28파운드 이상 소비한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책 출판으로 총 40,000파운드의 돈을 받았으나 모두 구제를 위해 사용하였다. 그는 평생토록 1년에 평균 14,000파운드의 돈을 선행을 위해 사용하였다.¹¹⁷⁾

웨슬리는 1743년에 “내가 고의적으로 10파운드 이상을 남기고 죽는다면 누구나 나를 거짓말쟁이나 도둑으로 증거 해도 좋다”고 하였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에 “나는 할 수 있는 한 모두 저축했고, 할 수 있는 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었다고 확신되기에 만족하다.”라고 고백했다.¹¹⁸⁾ 사실 웨슬리가 죽은 뒤에 그의 물품은 박물관에 돌려주었고, 자신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의 소유물은 옷과 상여꾼에게 줄 6파운드 밖에 없었다.¹¹⁹⁾

115) *Works*, 4:327.

116) 송홍국, 『존 웨슬리의 생애』, 26.

117)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321.

118) *Ibid.*, 324.

웨슬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식량이나 의류 등 필요한 물건을 줄 뿐 아니라, 그들의 생계를 위하여 예배당을 공장으로 전용하여 양털 고르는 일과 실 뽑는 일을 하게도 하였으며, 무직의 부인들로 편물을 하게 하여 그들의 수입을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¹²⁰⁾

런던시의 웨스트 스추릿 예배당도 역시 사회사업의 본영이었다. 여기에 그는 자선사업 연합회 본부를 두고 각종 자선사업을 실시하였다. 빈민학교를 세워 무산아동의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고, 가정구조회를 두어 의류나 식료품을 거두어 빈민들을 돕기도 하였다. ¹²¹⁾ 그는 빈민금고의 창설자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융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금을 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18개월 동안 150여 명이 혜택을 입었다.¹²²⁾

넷째, 웨슬리는 1742년에 뉴캐슬에 고아원을 설립하여 고아들을 돌보았다. 웨슬리는 과부들을 도왔다. 웨슬리는 런던에 두개의 구빈원(The Poor House)을 세웠는데, 이중 하나는 가난한 과부들을 위한 집으로서 9명의 과부와 1명의 시각 장애인 여자 그리고 두 명의 고아를 함께 살게 하였다. 또한 1766년에는 과부의 집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그는 의료원을 설립하여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았다. 그는 1741년부터 감리교 신도회 내에 병자 방문인들(visitors of the sick)을 두어서 병자 치유에 힘을 기울였다. 이들은 각각 맡겨진 지역을 매주 1회 순회 방문하여 병자들을 발견하고 병의 신상과 영혼의 상태를 동시에 조사하고, 영적으로 돌보아 주고 의약을 제공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¹²³⁾

웨슬리는 1743년에 감리교 북부 선교 기지 뉴캐슬에 고아원을 세우고 그 안에 무료 진료소(Free medical dispensary)를 설립하였다. 이미 1739년에 건립된 서부선교기지 브리스톨의 ‘새 집(The New Room)’에는 무료진료소가 운영되고

119) Ibid.

120) 송홍국, 『존 웨슬리의 생애』, 97.

121) Ibid.

122) *Works*, 8:299.

123) *Works*, 8:294.

있었으며, 1746년에는 남부선교기지인 런던에 무료진료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웨슬리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고 죽거나 많은 돈을 치료에 사용하고도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하는 당시의 의료현실에 실망하고 대담한 모험을 결심하였다. 웨슬리 자신이 그들을 치료해 보는 것이었다. 정식으로 의학을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25년이 넘게 틈나는 데로 해부학과 외과 분야를 공부하였다. 그는 직접 환자들을 찾아가 만나서 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도 있었다. 124)

5개월 동안 5백 명 이상의 환자들이 주기적으로 약을 받아갔습니다. 그들 가운데 전에 보지 못하던 사람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감리교인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지시대로 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받은 71명은 (네 명중 셋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오랜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동안 약값으로 40파운드가 소요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125)

웨슬리는 1747년에 『원시의학』(Primitive physics)을 저술하였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질병에 대한 총 829가지 민속의학에 의한 치료방법을 소개한 것으로서, 영국에서 19세기 중반까지 23회 출판되어 오랫동안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증진에 크게 공헌한 민간요법으로 인정되고 있다.126)

여섯째, 웨슬리는 학창시절부터 수감자들을 열심히 방문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왔다. 당시 감옥은 음식, 위생, 대우, 환경은 모든 것이 극히 열악했다. 대부분의 재소자들은 감옥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못 이겨 병들고 정신 이상에 걸려 죽어 나갔다. 웨슬리는 그들의 영혼구원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설교하고 세례를 주고, 그들이 중생하여 하늘나라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도왔다.127)

124) Ibid., 295.

125) Ibid., 297.

126) Ibid.

127)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335.

웨슬리는 브리스톨의 뉴게이트 감옥과 런던의 감옥들에 가능한 한 매주 1회씩 방문하여 교도소 목회를 일생 계속하였다. 뿐만 아니라 웨슬리는 실제로 감옥의 환경과 재소자들 처우에 대한 개혁을 주장하고 운동을 벌여 나갔다. 감리교는 1778년 연차총회에서 재소자 목회를 감리교 설교자들의 의무로 결정하고 이어서 교도소에 원목을 파송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냈다.¹²⁸⁾

일곱째, 웨슬리의 순종은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서게 하였다. 웨슬리가 노예제도를 처음 본 것은 1736년 7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을 방문했을 때 노예제도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웨슬리는 흑인 노예들의 고통에 “오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운 자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의의 태양이 버림받은 인간들에게 언제나 비추일 것입니까?” 라고 탄원하였다.¹²⁹⁾

이 후 1772년 2월 웨슬리는 일반적으로 노예무역이라 불리는 저주받을 죄악에 대하여 성실한 퀘이커 교도가 쓴 글을 읽었다. 노예제도에 관한 책을 읽고서, 고대에서 현대까지 노예제도와 같은 무섭고 야만적인 범죄가 없음을 깨달았다.¹³⁰⁾

웨슬리가 본격적으로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1774년 "노예제도에 대한 소고"(Thoughts upon Slavery)라는 글을 출판한 이후부터이다. 당시 북미의 성서를 인용하여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을 비판했다. 실제로 미국 남북전쟁당시에 노예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웨슬리의 글을 경멸하였다.¹³¹⁾

이 글에서 웨슬리는 노예 매매의 역사, 노예선과 노예시장의 비참함 등을 기술하고 있다. 웨슬리는 흑인들도 백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므로 그들의 인격과 자유를 파괴하고 빼앗는 것은 가장 잔인한 죄악행위이고 비인간화시키는 부정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노예상들을 도적과 강도와 살인자

128) Ibid., 336.

129) *Works*, 1:55-6.

130) Ibid., 3:467.

131) Ibid., 11:74-95.

들이라고 비난하고 신의 심판을 경고했다. 그는 노예해방을 위한 철야 금식기도회를 가졌고, 거기서 노예상들과 압제자들의 부와 권력이 무너지고 노예들이 묶인 쇠사슬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가 이뤄지기를 기도하였다. 후일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결과였다.¹³²⁾

여덟째, 웨슬리는 사회 도덕적인 면에서 생활 개혁운동을 실천하였다. 웨슬리는 1774년 영국 전역에 걸친 큰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기아선상에서 허덕일 때 그 구제책으로 금주를 주장하여 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도 하였다.¹³³⁾

웨슬리는 절대 금주론자로서 당시 맥주와 양주의 음주에 대하여 인간 사회의 건강과 도덕과 재산과 생명을 해치는 죄악이라고 강력하게 공격하였다. 그는 주류 판매자는 살인자의 괴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자이다. 술로 인해 얻은 이득에는 지옥 불같은 저주가 내릴 것이라고 공격하였다.¹³⁴⁾ 또한 그는 술에 취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짐승, 더러운 돼지로 만들며, 마음속에 마귀의 기질을 충동해서 결국 자신을 마귀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¹³⁵⁾

마지막으로, 웨슬리의 순종은 교육사업을 통해 나타났다. 웨슬리의 관심을 끈 것은 많은 아이들이었다. 어떤 아이들은 그 부모가 학교에 보낼 수 없어서 놓아둔 망아지 모양으로 지내고 어떤 아이는 학교에 가서 읽고 쓰는 것을 배우는 시늉을 내는 체하나 또 동시에 못된 장난을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을 뻔 하였다.¹³⁶⁾

결국 웨슬리는 자신의 집에 아이들을 모아 읽는 것과 쓰는 것과 셈하는 것을 배우되 악한 버릇은 배우지 못하게 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리고 그는 여러 번 실패 후에 마음에 맞는 선생들을 얻었다. 그들은 진실하고 상당한 지식이 있으며

132) Ibid., 4:449.

133) 송홍국, 『존 웨슬리의 생애』, 98.

134) *Works*, 6:147-59.

135) Ibid., 11:193-95.

136) Ibid., 8:298-99.

하는 일에 자기 재능과 열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육십 명의 아동이 다니게 되었는데 더러는 그 부모가 학비를 담당하나 대부분은 그 부모가 가난하여서 그 자녀의 학비를 내지 못하므로 그 비용은 대개 자유기부금으로 지출하였다. 웨슬리는 그들 가운데 몇 아이에게는 의복까지 주었다. 이 학교의 규칙은 이러하다.

첫째, 여섯 살 이하의 아동은 입학을 불허함. 둘째, 모든 아동은 아침설교 때에 다 출석할 것. 셋째, 학교에 있는 시간은 여섯시에서 열두시까지와 한시에서 다섯 시까지임. 넷째, 노는 날이 없을 것. 다섯째, 어느 아동이나 학교 안에서 선생에게 하는 말 외에는 말을 하지 않을 것. 여섯째, 어느 아동이나 허락 없이 한 주일에 이틀 결석하면 퇴학시킴.¹³⁷⁾

웨슬리는 학교를 위하여 유사 둘을 선정하였다. 그들의 임무는 월사금을 받고 요긴한 비용을 지출하며, 매주 선생들과 개인면담 하고 매주 두 번 씩 아이들과 기도하며 권면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며 예절 있고 규칙을 잘 지키는지 살피고,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선생들과 협력하여 규칙을 지키지 않은 아이들을 퇴학시키고, 매주 수요일아침마다 부모들을 모아 아이들을 가정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기를 것을 권면할 것들이었다.

웨슬리는 얼마 안 되어 아이들의 성질과 행위가 매우 변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속히 배웠고 또 동시에 완전한 종교 원칙으로 교훈함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구원을 얻으려고 힘쓰라는 권면도 받았다. 웨슬리는 마음과 생활의 성결을 통해 인간과 사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상적인 감리교 교육을 실현하였던 것이다.¹³⁸⁾

138) Ibid., 298.

138)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342.

IV. 웨슬리와 교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한다면, 교제와 전도는 사람과의 관계를 강조한다. 또한 교제의 훈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점을 둔 것이라면 전도의 훈련은 비그리스도인에게 초점을 둔 것이다. 전도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본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이다. 특별히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거기에는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가 있었다(행 2:42). 그곳에는 남녀노소, 신분을 초월하였다. 모두가 가족이며 형제 자매였다. 시간과 물질을 필요에 따라 나누었고 많은 수가 계속해서 더해졌다. 말씀의 능력이 더욱더 큰 증거들을 나타내었다.

성경적인 교제의 능력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전도자 웨슬리이다. 웨슬리는 교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 그 이유는 첫째, 웨슬리는 복음전도를 설교에만 의지하지 않았다. 그는 뛰어난 설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설교를 통하여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중에 4분의 1에 불과 하였다고 어느 통계는 밝히고 있다. 나머지 사람들의 회심은 양육이 이루어지는 소그룹(신도회, 속회, 조모임)에 일어났다. 그것도 대략 2내지 3년이라는 양육의 기간을 필요로 하였다. 이 과정 중에서 속회의 동료들이나 속회 인도자나 평신도 설교자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준 중요한 사람들이었다.¹³⁹⁾

둘째, 설교를 통한 전도의 한계를 깊이 보았기 때문이다.¹⁴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후에 다시 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목격한 헛필드의 아픈 고백을 듣고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그 원인을 밝혔다.

139) Theodore Runyon, 『새로운 창조-오늘의 웨슬리 신학』 김고광 옮김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2001), 161.

140) 홍성철, 『불타는 전도자 존 웨슬리』, 278.

그리고 무엇이 놀라우냐고?...영혼과 몸이 인간을 만들며, 영과 훈련이 그리스도인을 만든다. 그러나 핏필드의 설교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훈련이 전혀 없었다. 그들에게는 훈련의 그림자조차 없었다. 그것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다. 그들은 어떤 신도회에도 영입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향하여 어떤 기독교적인 연관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서로의 영혼을 돌보라는 가르침도 받지 못했다. 그 결과 만일 어떤 사람이 미지근한 상태나 아니면 죄에 빠질 때, 그를 일으켜 줄 사람이 전혀 없었다: 그는 점점 더 밑으로 떨어져서, 마침내 그가 원하면 지옥까지 갈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누가 그것에 관심을 갖겠는가?¹⁴¹⁾

셋째, 웨슬리 자신의 경험 때문이다. 그는 소그룹이라는 분위기에서 훈련받고, 성장했고 사역했고, 그리고 마침내 복음적 회심을 경험하였다. 그는 복음적 회심 이후 소그룹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중생으로 인도하였고 서로 돌보고 기도하며 사역하면서 성결한 사람들이 되게 하였다.¹⁴²⁾

마지막으로 이런 소그룹을 통한 양육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도자로 만들었다.¹⁴³⁾ 그 결과 다시 전도와 양육의 사역에 헌신하는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났다. 웨슬리는 이런 양육의 유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렇게 하므로 무한한 유익을 얻었다. 많은 사람이 전에는 알지도 못하던 기독교 교제를 체험하게 되었다. 그들은 '수고를 서로 담당'하고 '서로 함께 염려'하게 되었다. 그들은 매일 친숙해 짐에 따라 더욱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고한 죄를 고치게 하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며 고침을 입게 되었고, 여러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몰라 하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서 해방되었으며...지극히 거룩한 믿음 안에서 지어져 갔으며...그들은 사랑으로 강건해졌으며, 아주 효과적으로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하게 되었다.¹⁴⁴⁾

전도자에게 전도와 더불어 양육은 중요하다. 양육은 교제를 기초로 한다. 양육을 위해 웨슬리는 소그룹을 만들었고, 소그룹을 통하여 교제를 경험하였다. 후에

141) Ibid., 279.

142) Ibid.

143) Ibid., 280.

144) *Works*, 8:284.

는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 더 발전되고 보완된 소그룹을 만들게 되었다. 전도자는 소그룹의 역동성을 경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험한 소그룹의 역동성을 가지고 활용하여야 한다.

A. 소그룹의 경험

웨슬리는 위대한 전도자였다. 그는 위대한 전도의 유산을 후세에 물려준 매개체는 그의 탁월한 조직이었다.¹⁴⁵⁾ 그러나 웨슬리가 뛰어났다고 할지라도 홀로 조직들을 만든 것이 아니다. 그가 태어나 성장하면서 당시 있었던 여러 소그룹에 참여하여 경험함으로써 받은 영향이 있었다. 웨슬리는 다양한 경험 뒤에 자신이 종합하고 활용하여 소그룹을 만들게 되었다. 이제 웨슬리가 경험한 소그룹을 살펴보고 한다.

감리교 신도회는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었다.¹⁴⁶⁾ 웨슬리 당시에 이미 런던과 웨스트민스터 지역에만도 사십 여개의 신도회가 존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신도회들이 영국 교회 안에서 발전해 있었다. 이 신도회들은 경건주의자들의 “교회 안의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 산하의 엄격한 “예수회”(societas Jesu), 형식을 강조하지 않는 드 렌티의 신도회, 호넵의 종교적 신도회, 아씨씨의 성 프랜시스(St. Francis of Assissi)의 소그룹 운동등 여러 형태의 소그룹 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 모든 신도회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웨슬리 시대의 신도회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신도회는 그들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독일 루터교 목사 안토니 호넵(Anthony Horneck)에 의해 시작되고 장려되었다. 그는 독일 경건주의자들이 조직했던 소그룹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영국으로 이민 온 후 영국 국교회의 신부가 되었다. 호넵의 신도회의 구성은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고, 거룩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추구하였으며, 거기서 그들은 유익한 토

145) 홍성철, 『불타는 전도자 존 웨슬리』, 206.

146) Runyon, 『새로운 창조-오늘의 웨슬리 신학』, 160.

론을 하며 서로를 함양시키는 일들을 했다. 호넵은 이 모임을 위해 18개의 규칙과 규범을 만들었다.¹⁴⁷⁾ 호넵의 종교적 신도회라는 개념이야말로 웨슬리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¹⁴⁸⁾ 우드워드도 종교적 신도회에 관한 『기록』을 출판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소그룹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많은 소그룹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¹⁴⁹⁾

호넵과 우드워드의 영향으로 또 다른 종교적 신도회를 조직한 사람은 흥미롭게도 사무엘 웨슬리였다. 웨슬리의 아버지인 사무엘은 먼저 신도회를 옹호하는 편지를 1699년에 기록하였으며 1701년 “엠펜스 신도회”(Epworth Society)를 조직하였다.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도 소그룹을 조직하였다. 사무엘이 장기간 떠나 있는 동안 수잔나는 자녀들의 신앙을 돌보며 지도하기 위하여 주일 저녁에 함께 모이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설교문을 읽고 신앙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인들과 동네사람들까지 참석하게 되어 그 수가 200명에 이르렀다.¹⁵⁰⁾ 모인 곳이 부족할 지경이었다. 이 교제권은 “우리들 신도회”(Our Society)로 명명되기도 하였다.¹⁵¹⁾

이렇게 당시 사회의 분위기와 부모님의 영향 하에 웨슬리는 여러 신도회를 경험하였다. 좋은 경험과 보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웨슬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좋은 경험 세 가지를 언급하였다. 그는 그 경험을 “감리회의 발생”(the rises of methodism)이라고 묘사하였다.

147) Ibid., 163.

148) Ibid., 162.

149) 홍성철, 『불타는 전도자 존 웨슬리』, 209. 1960년에 “관습의 개혁을 위한 신도회”(The Societies for the Reformation of Manners), 1699년 토마스 브레이(Thomas Bray)는 교회의 교리문답과 미국 식민지의 종교화를 위하여 런던에 “기독교 지식을 진작시키는 신도회”(The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를, 1701년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영국인들의 영적 필요와 비그리스도인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외지에서의 복음전파를 위한 신도회”(The Society for the Propagation of the Gospel in Foreign Parts)를 각각 설립하였다.

150) *Works*, 1:432.

151) 홍성철, 『불타는 전도자 존 웨슬리』, 32.

(1738년)5월 1일, 월요일, 우리의 작은 신도회가 런던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기억되어야 할 사실은 소위 감리회의 첫 번째 발생은 우리 네 명이 옥스퍼드에서 함께 모이던 1729년 11월이었다; 두 번째는 사바나(Savannah)에서 스무 명 내지 서른 명이 나의 집에서 모이던 1736년 4월이었다; 마지막은 런던에서 사오십 명이 매주 수요일 저녁 함께 모여서, 자유로운 대화를 하되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고 끝내기로 합의한 바로 오늘이었다. 이 모든 단계에서 우리는 피터 뵐러의 충고와 권면에 의하여 크게 도움을 받았다.¹⁵²⁾

웨슬리의 교제는 소그룹의 형성과 함께 시작하였다. 소그룹에 참여해보지 않고서는 그 역동성을 알 수 없다. 웨슬리가 만든 세 신도회, 즉 “신성클럽”, “조지아의 종교 신도회”(The Religious Society in Georgia) 및 “페터 레인 신도회”는 전도자로서 소그룹을 경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웨슬리는 더욱더 성숙해 졌다.¹⁵³⁾

1. 신성클럽(The Holy Club)

신성클럽(The Holy Club)은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에 의해 1729년에 조직되었다. 조직된 목적은 성경을 읽다가 성결치 아니하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들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었다. 존 웨슬리는 수년간 그 부친의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링컨대학의 헬라이어 강사와 시험 중재위원으로 청빙을 받아 옥스퍼드에 오게 되었다. 그는 즉시 신성클럽에 가입하게 되었고 지도자로 추대 받게 되었다.¹⁵⁴⁾

신성클럽 창설 당시 회원수는 넷밖에 안되었으나 점차로 증가하게 되어 웨슬리 형제가 조지아 선교사로 떠날 무렵에는 30명의 회원이 있었다. 처음 네 사람은 링컨대학의 강사 존 웨슬리, 크라이스트처치 대학 학생 찰스 웨슬리, 같은 대학의 자비생 리차드 모건, 머튼 대학(Merton College)의 로버트 커크함(Rebert

152) Ibid., 211.

153) Ibid.

154) 송홍국, 『존 웨슬리의 생애』, 25.

Kirkham)이었다. 조지 핏필드는 1735년에 가입하였다.¹⁵⁵⁾

그들은 매일 매일의 행사를 실시해 나감에 있어서 일정한 일과표를 만들어 연구와 신앙생활의 향상을 도모하였다.¹⁵⁶⁾ 그들은 처음에 매 일요일 저녁에만 모였으나 나중에는 매일 밤 6시에서 9시까지 모였다. 그 순서는 기도, 헬라어 성경과 고전문학 연구, 그 전날에 공부한 것의 복습, 그 다음날 순서의 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검소한 식사로 마쳤다. 매주 1차의 성찬식도 거행하였고, 한주에 수요일과 금요일 2회 금식을 하면서 자신들이 신앙생활과 선행에 열심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나누었다.¹⁵⁷⁾

그들은 주변에서 성찬형식론자(Sacramentarians)라고 하였고, 다른 일부에서는 조소하며 좀벌레가 천을 좀먹듯이 성경을 먹고사는 성경벌레, 성경고집쟁이라고 불렀다. 그중에서도 규칙주의자(Methodists)와 신성클럽이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들었다.¹⁵⁸⁾

존 웨슬리와 신성클럽 회원들은 1729년에 한 책, 곧 성경의 사람이 되기로 헌신하였다. 성경이 그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척도가 되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판단규범이었다. 그들은 성경의 깨달음을 통해 구제와 교도소방문, 교육, 병든 자 방문 등 세상에 대한 책임감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신성클럽을 통해 그들은 그들의 시간과 사고를 깊이 나눔으로 서로에게 가까워졌다. ¹⁵⁹⁾

신성클럽을 통해 웨슬리는 개인의 극기와 성결을 위한 소그룹 운동의 역동성을 배우게 되었다. 죄 된 인간의 성품 때문에 인내는 성결한 삶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하였다.¹⁶⁰⁾ 그런데 클럽 회원들은 서로의 삶을 나누어야 했기 때문에 소그룹은 웨슬리에게 좋은 체험을 하게 하였다. 둘째로 교제의 능력을 경험하였다. 회원 간에 매일 매일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야만 했

155) *Works*, 8:409.

156) *Ibid.*, 11:609-12.

157) 송홍국, 『존 웨슬리의 생애』, 26.

158) 바실 밀러, 『요한 웨슬리의 생애』 한영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33.

159) 홍성철, 『불타는 전도자 존 웨슬리』, 214.

160) *Ibid.*, 215.

다. 서로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웨슬리는 개인적 성결과 사회적 활동사이의 균형을 배우게 되었다. 그는 신성클럽을 통해 양 극단을 피하였다.¹⁶¹⁾

2. 조지아의 종교 신도회(The Religious Society in Georgia)

종교 신도회는 1735년부터 1737년 웨슬리가 조지아 선교사로 사역할 때 시작되었다. 그는 사바나와 프레데리카(Frederica)의 백인 회중들을 위한 목회를 수행하였다. 동시에 웨슬리는 종교적 신도회에 관한 책을 탐독하였다. 그 가운데 1680년에 처음 발행된 『교구인들을 위한 지방 교구목사의 충고』라는 책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 책을 통해 양육의 중요성을 말하기도 하였다.¹⁶²⁾ 웨슬리가 신도회를 조직할 때 도움이 된 또 다른 책은 드 렌티(Gaston Jean Baptiste de Renty)의 자서전적 전기였다.¹⁶³⁾

웨슬리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신도회를 구성하고 주일 오후와 밤, 수요일 밤에 자신의 집에서 20내지 30명이 모여서, 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송 부르며 서로 권면하였다.¹⁶⁴⁾ 그는 이를 위하여 두 가지의 규칙들을 제정하였다.

우리의 주요 계획을 추구하는 데 적합한 문이 아직도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 사바나에 있는 적은 양 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가장 유익하게 일할 수 있을 까를 고려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첫째, 그들 중에 보다 진지

161) Ibid.

162) 하퍼, 『감리교 영성 생활의 뿌리』, 71. 이 책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단언했다. “만일 교회의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 곳에서 서로 합하여 자기들 스스로가 친밀한 신도회에 참여하고 모든 선한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서로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타락하는 기독교를 그 원시적인 삶과 활력으로 회복시키는 가장 영향력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163) 마르틴 슈미트, 『존 웨슬리-신학적 전기 회심으로서의 내적발견』 상(上). 김덕순 김영선 공역(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7), 275. “존 웨슬리는 1736년 5월 20일에 이 책을 읽기 시작하여 아메리카 체재 중에도 항상 소중히 생각하고 책상 오른 편에 두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이 책을 손에서 떼어 놓는 일이 없었다. 웨슬리는 노년에 이르러서도 이 책을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이상이라고 생각하였다.”

164) Runyon, 『새로운 창조-오늘의 웨슬리 신학』, 165. Wesley, “A Short History of the People Called Methodists”에서 인용.

한 사람들에게 충고를 하여 그들 나름대로 일종의 작은 신도회를 조직하게 할 것과 1주일
에 한 두 번씩 모여 서로 잘못을 고치고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도록 할 것. 둘째, 그들 중
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보다 긴밀한 조직을 갖도록 선정하여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든가 그들 소수를 전부 우리 집으로 초청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
임은 매주일 오후에 갖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다.¹⁶⁵⁾

웨슬리는 신도회를 조직하고 나서 주일의 일과표를 조정하였다. 그는 새벽 기
도회(The Morning Service)는 5시, 설교와 성찬예배(The Communion Office
with the sermon)는 11시, 저녁예배(The evening service)는 오후 3시에 드렸
다. 그는 교우들을 열심히 심방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부터 웨슬리는 그 작은 신
도회와 보다 깊은 교제를 위하여 그의 가정에서 모였는데, 그의 바램은 신도회의
사람들도 초대교회를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다.¹⁶⁶⁾

웨슬리는 그 경험을 먼저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하였다. 그 결과, 그의 가정이
주간 중에는 손님 접대방, 고아원, 과부를 위한 양로원, 학교 등으로 변신했다.
“그 모든 활동들은 끊임없는 기도와 찬송으로 수행되었다. 일이 예배이었고, 예배
가 바로 최고의 일이었다.”¹⁶⁷⁾

웨슬리는 조지아의 종교 신도회는 옥스퍼드 신성클럽보다 덜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몇 가지 실험을 할 수 있었다. 첫째, 이 신도회는 교회 안에
서 형성되었다. 교회 안에 설립하였기 때문에 신성클럽과는 다르게 교인들을 돕
고 함께 하는 경험을 하였다. 신성클럽은 옥스퍼드 대학의 젊고 학식이 있는 사
람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조지아의 종교 신도회는 교인들 중에 영적인 일에 깊
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다. 조지아의 교인들은 후에 하나님이 말씀
을 전한 사람을 악의에 찬 태도로 욕을 할 정도였으니 신성클럽과 그 구성에 있어
너무 대조적이었다.

두 번째는 모라비안들의 방법을 창조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었다. 모라비안들

165) *Works*, 1:45.

166) *Ibid*.

167) John S. Simon, *John Wesley and Religious Societies*, (London,: The Epworth Press, 1955), 158.

은 교회 내에서 작은 순모임을 통한 교제를 믿고 또 실천하였다. 웨슬리는 교회에서 전도설교와 소그룹 교제를 통하여 갱신하려고 노력하였다.¹⁶⁸⁾

세 번째, 조지아의 종교 신도회에서 웨슬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모라비안 형제들로부터 지도와 지침을 구하는 동등한 관계였다. 그는 스왓겐버그 목사를 그에게 귀중한 충고를 제공하는 상담자로 수용하였다. 그는 지도자라도 권면이나 격려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되었다. 이것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교제권 안에서 가르칠 수 있었다.¹⁶⁹⁾

3. 페터 레인 신도회(Fetter Lane Society)

웨슬리가 런던으로 돌아온 후 페터 레인 신도회(Fetter Lane Society)는 1738년 5월 1일 런던에서 조직되었다. 웨슬리가 열 명을 모아 작은 신도회를 구성하고 제임스 허튼(James Hutton)의 가정에서 모였으나 회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집은 너무 좁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오십 여명의 신도회는 페터 레인에 있는 낡은 집회 장소로 옮겼다. 신도회의 회원들은 야고보서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의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기 위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모이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웨슬리는 공중예배의 중요성과 특별히 교구 신부의 손으로 받는 성찬예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웨슬리는 피터 빌러의 충고도 참작하여 그 신도회를 이끌어 갈 삼십 삼개항의 규칙을 작성하였다. 이 규칙들은 신도회의 목적(제 1항), 내적 서클의 모임(제2-6항), 모임의 순서(제 12-16항), 가입과 제적(제 17항 및 32-33항), 기타의 여러 기능(제 27-31항)등으로 되어 있다.¹⁷⁰⁾

웨슬리는 페터레인 신도회 조직을 통하여 전도를 새롭게 강조하였다. 또한 종교적 배경과 특질에 관계없이 모두를 포괄하는 교제를 실천하였다. 과거 종교 신

168) 홍성철, 『불타는 전도자 존 웨슬리』, 218.

169) Ibid., 219.

170) Ibid., 229-32. 페터 레인 신도회의 규율 참조.

도회와 비교해서 구성원의 자격은 국교회 지지자에 국한되지 않고 비국교도가 기존 교회의 구성원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페터 레인 신도회는 영국의 종교 신도회와 독일의 모라비안 특성을 보완함으로써 새롭게 되었다.¹⁷¹⁾

마지막으로 평신도를 조모임이나 작은 신도회를 위하여 개발하고 사용하였다. 그 특징으로 그들이 당하는 시험, 곤고함, 부족함, 고통을 공개적으로 함께 나누는 5명 내지 10명의 사람들을 그룹으로 묶었다.¹⁷²⁾ 여기에서 평신도를 적절한 신학훈련 없이 지도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고는 웨슬리 당시에 진정으로 급진적이었다.¹⁷³⁾

B. 소그룹의 활용

웨슬리는 페터레인 신도회를 탈퇴하게 되었다. 1739년 8월 진젠도르프와 접촉한 바 있는 몰터(Philipp Heinrich Molther, 1714-1780)가 페터레인 신도회 안에서 발표한 의견 때문에 분리에 대한 생각이 증폭되었다. 그는 만일 어떤 사람이라도 의심을 가졌다면 그는 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의 경건한 소망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면서 성례전과 기도예 불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가르침은 웨슬리의 끊임없는 활동성을 공감할 수 없었다.¹⁷⁴⁾

웨슬리는 조지 헛필드의 권면으로 야외설교를 하기 시작했다. 약 20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작은 그룹을 인도하여 페터 레인 신도회를 떠나 파운더리 신도회(the Foundry Society)에 가입하였다. 그 후 웨슬리는 새로운 신도회를 조직하며 활용하게 되었다.

171) 슈미트, 『존 웨슬리-신학적 전기 회심으로서의 내적발견』 중(中), 14.

172) Ibid.

173) 홍성철, 『불타는 전도자 존 웨슬리』, 222.

174) 슈미트, 『존 웨슬리-신학적 전기 회심으로서의 내적발견』 중(中), 56.

1739년 말 경 자기들의 죄를 깊이 깨닫고 구원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8-9명의 신도가 런던에 있는 웨슬리를 찾아와서 무슨 방법으로 자기들의 머리위에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을 가를 가르쳐 줄 것을 청하였다. 웨슬리는 이 일을 중대시하고 심사숙고한 후에 매주 1차 목요일 저녁마다 모여...그들과 또는 신 가입자들에게...적절한 교훈을 하는 동시에 같이 기도하고 헤어졌다. 이것이 런던과 그 밖에 다른 곳에 조직된 연합 신도회의 시작이다. 연합신도회는 각 회원의 명부를 만들어 두고 각 가정을 방문하였는데 이 신도회의 조직이야말로 조직적인 감리회 운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75)

웨슬리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연합 신도회를 만들었다. 이 신도회들은 노동자 계급의 사람들의 영적 필요에 너무나 잘 조화되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신도회에 들어왔다. 연합신도회는 회원들의 영적 욕구에 따라 그 산하에 몇 개의 소그룹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 소그룹은 “속회(The Class Meeting)”로서 연합회의 모든 회원들은 이 회에 참여해야만 했다. 두 번째 소그룹은 “조모임(The Band Meeting)”으로서, 회원들의 보다 더 긴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서 참석하였다. 세 번째 소그룹은 “선택사회(The Select Society)”로서, 이는 계속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만을 위하여 고안된 신도회였다. 네 번째 소그룹은 “회개회(the Penitent Society)”로서 죄를 범하고 은혜에서 떨어진 회원들을 회복시키고자 특별히 고안된 회였다.176)

1. 속회(The Class Meeting)

속회의 발생은 어떤 의도가 없이 우연한 것이었다. 속회는 1742년 2월 15일 브리스톨에서 발생하였다. 웨슬리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야외설교를 시작하여 회심자들이 신도회에 들어오게 되었다. 여기에 몇 가지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특별히 두 가지의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되었다.177) 첫 번째는 회심자들의 신앙관리였다.

175) *Works*, 8:31.

176) 홍성철, 『불타는 전도자 존 웨슬리』, 236.

우리가 영적 형편을 서로 보살피려고 힘쓰는 만큼 우리는 복음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어떤 위선자가 가만히 들어와 있는지도 모를 것은 우리 회중에 아무 시험도 없었던 까닭이다. 어쨌든 여럿이 냉랭해지고 또 전에 잘 범하던 죄를 범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중에 그냥 두면 나쁜 결과가 생길 것을 우리는 깨달았다. 모든 죄는 전염성이 있는 까닭이다. 우리는 이런 이유로 고통 하였다. 우리 교인들은 런던 시내 각처에 흩어져 살므로 나는 각 교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감시할 수 없어서 내가 그 실정을 알게 되기 전에 많은 품행이 바르지 못한 이가 여러 가지 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다.¹⁷⁸⁾

두 번째, 집회장소이며 동시에 만남의 장소인 ‘새 집(The New Room)’의 빛 청산이었다.

나는 브리스톨에 있는 신도회의 빛을 어떻게 갚을지 거기 회원들과 의논 중이었는데 한 사람이 일어서서 "우리 회원들은 각각 빛을 다 갚을 때까지 한 주간에 한 페니씩 내도록 합시다"라고 제안하였다. 다른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러나 여럿이 너무 가난하여 그렇게 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 그 첫 번 제안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가장 가난한 사람 열한명을 내게 맡기시오. 만일 그들이 낼 수 있으면 좋고 내가 그들을 매주 심방하여 낼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내 몫과 그들의 몫을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각 여러분의 이웃사람 열한 명씩 맡아 매주 심방하면서 내는 사람의 돈은 받고 못내는 사람들의 돈은 보충하면 좋겠습니다" 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이 의견을 실행하는 가운데 열한 명씩 맡은 자 중 몇이 내게 알려주기를 이리저리한 사람은 옳게 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문득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 내려는 방법임을 깨달았다.¹⁷⁹⁾

웨슬리는 그 모임의 지도자를 속장이라 불렀다. 속회는 신도회가 거주지에 따라서 약 11명의 속회원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이 매주 심방하는 교우들의 품행을 특히 조사하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행하여 많은 품행이 바르지 못한 이들

177) Ibid., 246.

178) *Works*, 8:282.

179) Ibid., 283.

을 발견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악한 행실에서 떠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품행이 좋지 않아 속회에서 그들을 탈퇴시키기도 하였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두려움으로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속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각 속회원을 적어도 한 주일에 한 번 심방하고 그들의 영적 형편을 조사하며 경우를 따라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안위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그들이 가난하여 구제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구제도 했다. 목사와 유사를 만나 목사에게는 누가 앓고, 누가 행실이 나쁜지 보고하며, 유사에게는 전 주일에 속회에서 걷은 돈을 전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속장들이 각 집으로 찾아가 속회원들 방문하였으나 그 방법이 불편함을 알게 되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속장이 필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 둘째 많은 사람이 그들을 찾아오는 것을 싫어하는 주인과 친척과 혹은 남의 집에 사는 것, 셋째 이렇게 싫어하지는 않아도 속장이 속회원들을 만나서 자유롭게 그 직무 곧 격려, 안위, 책망들을 할 기회가 없는 것, 넷째 한사람이 반대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찬성하는 일이 가끔 있으므로 모든 속회원들을 한군데 다 모아 놓지 않고는 찬성반대를 똑똑히 가릴 수 없는 것, 다섯째 친척과 이웃사이에 여러 가지 오해와 다툼이 가끔 일어나므로 다함께 대면시키지 않고는 그 오해와 다툼을 없앨 수 없는 것들이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한 끝에 각 속회원을 한데 모으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함으로 각 개인의 품행을 더 자세히 조사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집으로 심방하기 불편한 사람들과 또 집회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익을 받게 되었다. 형편을 따라 권면이나 책망을 하고 다툼을 풀고 오해를 없이하며 화평하게 한두 시간을 보낸 후에는 서로 기도와 감사로 헤어지게 되었다.

웨슬리는 속회에 대하여 무한한 유익을 얻었다. 많은 사람이 전에는 알지도 못하던 기독교 교제를 체험하게 되었다. 이 속회제도는 모든 신도회로 급속히 적용되고 발전되어 나갔다.

웨슬리는 속장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선택에 신중을 기했다. 웨슬리가

정한 규정에 따라 직접 선택을 하였다. 속회는 남녀 모두에게 개방되었다. 웨슬리는 신도회와 속회에 들어오고자 하는 자들을 모두 환영하였으나, 일단 회원이 되면 모든 규율을 제법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하였다. 게다가 속회는 개인적 성장과 공동체적인 교제라는 부수적인 축복도 있었다.¹⁸⁰⁾

속회의 강점은 우선 무식한 자들을 가르치고, 경험이 없는 자들을 인도하며, 낙담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떨어진 자들을 회복시키며, 믿는 자들의 교제를 진작시켰다. 그러나 가장 의미 있는 강점은 무엇보다도 전도, 교제 및 평신도 지도력이었다.¹⁸¹⁾

웨슬리는 앉아서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았다. 웨슬리는 사람들을 찾아 다녔다. 그는 야외설교의 결과로 회개와 각성이 일어난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 지속적인 양육을 위해 속회로 인도하였다. 그는 그들이 내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그들과 더불어 일하고 기도하였다. 웨슬리는 속회에서 그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누었다. 그 결과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속회는 효과적인 전도를 위한 웨슬리의 가장 좋은 조직이었다.¹⁸²⁾

2. 조모임(The Band Meeting)

신도회가 크게 자라남에 따라 또 다른 모양의 작은 그룹인 ‘조모임’의 필요성이 생겼다. 실제로 조모임은 속회보다 앞선 것이고 그것은 모라비안의 영향에서 온 것이었다.¹⁸³⁾ 속회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모임이라면, 조모임과 선택 자회는 믿는 자들을 더 성숙하고 헌신된 자로 훈련시키기 위한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조모임은 내면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죄의 상호 고백과 영혼에 대한 상호 엄격한 감독을 통한 신앙 고백적 영성 훈련 모임으로 운영되었다. ¹⁸⁴⁾

180) 홍성철, 『불타는 전도자 존 웨슬리』, 250.

181) Ibid., 251.

182) Ibid., 252.

183) 슈미트, 『존 웨슬리-신학적 전기 회심으로서의 내적발견』 상(上), 317; *Works*, 1:112-13.

조모임의 구성은 5내지 10명이었고, 그들은 좀더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숨김없이 내놓되 특히 그들을 아직도 침범하는 죄와 유혹하는 시험에 대하여 숨김없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원하였다. 그들이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성구를 읽고서 더욱 무슨 기회를 만들기를 원하였다. 그들의 소원에 따라 웨슬리는 그들을 더 작은 단체로 나누었는데 결혼남자, 독신남자, 결혼여자, 독신여자를 각각 함께 모았다.

보통 속회원들 가운데 약 20%가 이 모임에 속하였다. 조모임의 주요규칙은 이러하다. “1738년 12월 우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① 적어도 한 주일에 한번씩 모이고, ② 정각에 출석하며, ③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고, ④ 각각 자기의 솔직한 영적 형편을 말하되 지난 모임 이후에 자기가 언행심사에 있어 범한 죄와 빠졌던 시험을 거짓 없이 한사람씩 순서대로 말하며, ⑤ 회원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한 말을 하고 다음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상태와 죄와 유혹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었다.”

조모임은 약속된 장소에 약속된 시간을 엄수하여 모여서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였다. 회원들은 조모임의 지도자로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지난 모임 이후 자신의 죄와 시험과 유혹은 자신의 영적 싸움과 그 결과에 대하여, 즉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숨김없이 진실하게 말하고 지도자는 각 회원들의 고백에 적절하게 위로와 용서와 책망과 권면과 충고의 말로 치료하는 응답을 주었다.

조모임에 들어오려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당신은 죄 용서를 받았는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소유했나?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당신의 영과 함께 증명하는 성령의 증거를 소유했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속에 부어졌나? 당신을 점령하고 있는 내적인 죄나 외적인 죄가 있나? 당신은 당신의 모든 잘못을 말하겠는가? 당신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말해 주기를 바라는가?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라는가? 당신은 마음속의 모든 사실을 예

184) 슈미트, 『존 웨슬리-신학적 전기 회심으로서의 내적발견』 중(中), 126.

의 없이, 숨김없이, 지체 없이 말하기를 원하는가?”

웨슬리는 조모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남자반은 수요일 밤에, 모든 여자반은 일요일에 함께 모일 것을 제안하였다. 그렇게 하여 그들에게 가장 필요할 특별한 훈계와 권장을 하고 그들의 참된 요구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게 하려 하였다.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게 하기 위하여 웨슬리는 석 달에 하루 저녁은 남자반만 모으고, 둘째 저녁에는 여자반만 모으고, 그리고 셋째 저녁에는 남녀반을 다 함께 모아 초대교대처럼 애찬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신자가 연합함으로 큰 유익을 받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고한 죄를 고치게 하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며 고침을 입게 되었고, 여러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몰라 하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죄를 극복하기 시작하였다.

3. 선택사회(The Select Society)

웨슬리의 감독 아래 있던 감리회의 초창기에는 선택사회가 연합 신도회에서 가장 헌신된 내부 조직이었다. 선택사회는 웨슬리 자신이 가장 헌신된 조모임 회원들 중에서 뽑아낸 선택된 그룹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조모임 회원들 중에서 더욱 믿음과 행실에 모범을 보인자들, 즉 내적인 성결과 외적인 성결을 이루는데 뚜렷한 발전을 이룬 자들이었다.

그들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신앙생활에 있어 더욱 담대해졌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 것으로 하나님의 빛 안에서 꾸준히 걸어갔으며 다른 형제들보다 앞장서 나갔다.

선택사회를 통해 웨슬리는 첫째, 기독교의 완전을 위해 나가고자 하였고, 둘째, 그들이 받은 은사를 훈련하도록 하였고, 셋째, 그들이 피차 더욱 사랑하고, 서로 돌보도록하며 어떤 경우에라도 웨슬리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터놓고 말할 수 있는 무리를 갖는 것이었고, 넷째, 그들에게 사랑, 순결, 선행의 모범을 제시해서 그들 형제, 자매들에게 실천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것은 주를 위

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선택자회는 각자 마음에 품은 스스로의 규율에 따라 운영되었고, 단 세 가지만이 운영규칙 사항으로 되어 있었다. 그 규칙은 첫째 이 모임에서 말한 것을 다시 말하지 말 것, 둘째, 각 회원들은 사소한 일까지도 그의 목사의 말을 따를 것, 셋째, 모든 회원들은 모두를 위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이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동등한 위치의 발언권이 있었다. 웨슬리는 지도자였지만 모임에서는 똑같이 성결을 추구하고 본을 보이는 회원이었다. 다른 회원들에게 격려와 조언을 받아야 했다. 웨슬리는 동등한 의견 발언권을 신실함을 바탕으로 사용함으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선택자회는 이런 부담 없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충고에 순종하였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용기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4. 회개회(the Penitent Society)

웨슬리는 믿음의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조직을 구성해 나갔고, 대부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신앙생활을 잘 하였다. 그러나 몇몇은 고의적으로, 몇몇은 습관적으로 타락한 사람도 있었다. 이런 사람에게는 속회, 조모임 으로는 별효과가 없음을 웨슬리는 알고 그들을 따로 모아 그 사람들의 처지에 맞는 교훈과 충고를 해주었다. 이 모임이 회개회이었다. 회개회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 모였고, 형편에 따라 분리되어 운영되었다.¹⁸⁵⁾

회개회의 목적은 그들을 '그들의 영혼의 목자요 감독'인 이에게 회복시키는 데 있었다. 이때에 사용하는 찬송과 권면과 기도는 다 그들의 형편에 맞는 것들이었다. 그들은 전에 하나님을 보았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는 지경에 빠진 것을 애통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위로를 받고 돌아갔다.¹⁸⁶⁾

185) *Works*, 8:291.

186) *Ibid.*

IV. 웨슬리와 전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전한 메시지는 복음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사역 기간에도 그 목적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이었다. 즉 그의 삶의 목적 자체가 전도였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셨다. 정오에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셨고, 밤중에 니고데모와 말씀하셨다. 길에서 바디매오와 만나셨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셨다. 해변에서 베드로를 만났고 십자가에서는 강도와 만나셨다. 심지어 죽어가는 시점에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다.

웨슬리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모습을 닮은 전도자였다. 그의 소명은 전도의 삶이었다. 그는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밖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것이 그가 목사들을 위해 세운 법칙 중의 하나였고, 자신도 스스로 이 규칙을 열정과 성실로 지켰다. 웨슬리는 죄와 사단의 암흑에 묶여 있는 영혼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¹⁸⁷⁾

웨슬리는 복음적 회심을 경험하고 난 후 그의 사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회심이라는 경험은 웨슬리로 하여금 더욱더 전도자가 되게 하였고 죽을 때까지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여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요 소명이었다. 그는 지위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는 삶 자체가 전도라는 것을 표현하였다.

그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복음을 경험한 이후 복음을 통한 성결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였다. 그는 성경적 성결을 전파하기 위해 전도를 하였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성결과 전도는 하나였다. 다시 말해서 성결의 목적은 전도이며 전도의 목적은 성결이었다. 성결의 경험이 강조되지 않으면 전도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약화되었다.¹⁸⁸⁾

187) 스케빙턴, 『존 웨슬리 위대한 전도자』 김선도 역 (서울: 유니온출판사, 1983), 99.

복음전도를 위해 우리는 복음적 회심을 경험할 뿐 만 아니라 뜨거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도해야 한다. 전도는 복음전도에 필요한 영성 중의 하나이다. 전도를 위해 복음적 회심을 경험하고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전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전도자는 교제를 통해 양육한 사람을 전도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A. 복음적 회심

웨슬리의 영적인 변화는 울더스게이트의 체험 이전부터 있었다. 웨슬리는 1725년 제레미 테일러(Jeremy Taylor)가 쓴 『거룩한 삶과 죽음의 규칙』(Rule and Exercises of Holy Living and Dying)을 읽고 철저하게 자신의 매일의 생활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책을 통해 ‘의도의 순수성’, 곧 올바른 의도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 책을 읽는 중, 나는 대단한 감화를 받았다. 특히 의도의 순수성을 논한 부분에서 느낀 바가 컸다. 당장에 나는 나의 생 전체를, 곧 나의 생각, 말, 행위 일체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 생의 일부분만 아니라, 그 전부가 하나님께 대한 제물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게 대한 제물 곧 결국에서 가서는 마귀에게 대한 제물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중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¹⁸⁹⁾

웨슬리는 1726년에 토마스 아 켐피스(Thomas a Kempis)의 『그리스도를 본받아』(Christian's Pattern)를 접하게 되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진실한 종교란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모든 생각뿐 아니라 말과 행동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¹⁹⁰⁾ 그에게는 의도의 순수성과 감정의 순결이 하나님의 동산에 올라가게 하는 영혼의 날개였다.¹⁹¹⁾

188) 홍성철, 『불타는 전도자 존 웨슬리』, 118. 알렉산더 보레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결의 목적은 전도이며, 전도의 목적은 성결이다! 그뿐이라, 성결의 전파는 전도의 방편이나 복음의 전파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되게 하기 위함이다.”

189) *Works*, 11:428.

190) 케니쓰 콜린즈, “요한 웨슬레의 회심:능력으로의 변화” 『회심』 홍성철 편저 (서울: 도서출판 세복, 1995), 225.

1726년에 나는 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접하게 되었다. 이 책을 읽는 가운데 내적 종교, 마음의 종교의 본질과 범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나의 마음 곧 나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서는 나의 생 전체를 바친다 해도(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치고),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¹⁹²⁾

그 후 1, 2년이 지난 후 웨슬리는 윌리엄 로(William Law)의 『기독자의 완전』에 대한 실제적 논문』(A Practical Treatise upon Christian Perfection)과 『경건과 거룩한 삶으로의 진지한 초청』(Serious Call to a Devout and Holy Life)을 접하게 되었다. 이 책들을 통해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의 넘치는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확신하게 되었다.

그 후 일 이년 후 로의 저서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진지한 초청』을 접하게 되었다. 이 책들은 나로 절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함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절대로 필요한 것이라고 느낀다. 그리고 이 은혜를 힘입어 나를 하나님께 바쳐진 자 되기로 결심하였다. 곧 나의 영혼과 몸과 소유 전체를 그에게 바치기를 결심하였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너무 지나친 말이라고 하겠는가? 또는 우리 자신, 곧 우리의 전 소유와 전 존재를 온전히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할 사람이 있겠는가?¹⁹³⁾

웨슬리에게 있어서 1725년에서 1729년 사이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웨슬리 자신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다짐하였다. 어떤 학자들은 1725년에 시작된 웨슬리의 변화에 너무도 깊은 인상을 받아서 그것을 웨슬리의 회심으로 간주하기도 했다.¹⁹⁴⁾

191) Ibid.

192) Ibid.

193) *Works*, 11:429.

194) 학자들 간에는 웨슬리의 회심에 대해 1725년과 1738년의 문제를 놓고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본연 구자는 대다수 웨슬리 학자들의 견해를 따라 1725년을 웨슬리의 ‘윤리적인회심’으로, 1738년을 ‘복음적인 회심’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조종남, “올더스게이트 체험이 그의 신학형성에 끼친 영향” 『요한웨슬레의 신학』 개정증보판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9), 60-78.

웨슬리의 이 회심에 대한 이해 없이는 위대한 전도자 웨슬리와 그의 부흥운동, 사회 개혁에 대해 참된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회심 중에 1725년보다는 1738년 올더스 게이트의 체험은 웨슬리에게 더 중요하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1725년의 회심은 구원의 신앙도 능력도 없는 회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1725년에 웨슬리는 신앙에 대하여 무미건조한 이성적인 개념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 수잔나에게 편지를 쓰면서 믿음은 이성적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며 결국 이성으로 귀결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1744년 웨슬리는 그의 "이성과 종교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진지한 호소"(A Farther Appeal to Men of Reason and Religion)에서 그의 생각은 바뀌었다.¹⁹⁵⁾ “나는 1725년에 집사 안수를 받았고, 그 다음해에 사제로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나는 구원의 신앙이 무엇인지 무지하여서, 믿음이란 신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명제들에 강하게 동의하는 것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해했었다.”¹⁹⁶⁾

둘째, 1736년에 웨슬리는 조지아 선교를 위해 배를 탔다. 그는 미국으로 가는 배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죽음이 두려웠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그의 해결되지 못한 죄책감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셋째, 웨슬리가 조지아에 도착한 후 독일인 교회 목사 스팅겐버그(August Spangenberg)와 대화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웨슬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다는 체험적 지식은 물론 확신도 없었으므로 조지아에 있는 동안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었다.¹⁹⁷⁾

그는 말하였다. “내 형제여, 나는 먼저 당신에게 한두 가지 물어야겠습니다. 당신 자신 속에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영과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 됨을 증

195) *Works*, 8:55-267.

196) *Ibid.*, 131.

197) 콜린즈, “요한 웨슬레의 회심: 능력으로의 변화,” 230.

거합니까?” 나는 놀랐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것을 관찰하고 또 물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나는 잠시 멈추었다가 “나는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압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였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압니까?” 나는 대답했다.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었을 것입니다” 그는 덧붙였다. “당신은 확실히 압니까?” “나는 압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이 무의미한 말이었다는 것을 잘 알았다.¹⁹⁸⁾

웨슬리는 조지아에 있을 때 칭의의 상태나 본질에 대하여 무지하였었다. 그는 칭의를 성결과 혼동했다고 고백하였다. 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보다 도덕적 율법에 대한 복종을 더 중요시 하였다. 옥스퍼드 대학에서의 선교, 조지아 선교는 비교적 실패작이었다. 그것은 조지아에서처럼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를 추구하려 했기 때문이었다.¹⁹⁹⁾

조지아 선교에서 실패하고 2년 3개월 만에 웨슬리는 영국으로 돌아왔다. 그의 선교 실패의 경험은 오히려 그를 중생케 하는 요인이 되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한 반성은 웨슬리로 하여금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만남은 웨슬리의 신앙에 너무나 큰 유익을 주게 되었다.

웨슬리가 조지아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온 후 극도의 패배감과 좌절감에 빠져 말할 수 없는 허탈감에 빠져있을 때 모라비안 형제단의 지도자 피터 뵐러(Peter Bohlor)를 만났다. 그는 웨슬리에게 큰 영적 교훈을 주었다. 웨슬리는 뵐러와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다.

웨슬리는 1738년 3월 4일 “옥스포드에 가서 동생을 만났다. 동생은 늑막염에서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피터 뵐러도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뵐러를 통해 5일 주일에 나의 불신앙(이 불신앙이란 지금까지 자기들의 선행으로 의를 얻으려는 노력)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인 그 신앙이 내게 없음을 깨달았다.”²⁰⁰⁾ 이와 같은 불신앙의 자기를 발견하고 이제

198) *Works*, 1:37.

199) 콜린즈, “요한 웨슬레의 회심:능력으로의 변화,” 232.

200) *Works*, 1:106.

는 전도할 용기를 잃어버리고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벨러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설교를 하시오. 그리고 나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에 관하여 설교를 하시오”라고 타일러 주었다.²⁰¹⁾ 이것이 웨슬리에게는 큰 용기가 되었다.

이 일이 있은 후 웨슬리는 비록 원점에서 시작을 하기는 하였어도 이 새 교리(믿음)에 관하여 설교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가 전한 사람은 클리포드라는 사형수였다. 여러 번 이 사형수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했을 때 깊은 죄의식에 사로잡혔던 이 사형수가 자신 있게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내 죄를 가져가신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이제 정죄함에서 벗어났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사형수가 사형장을 빠져 나갈 때 그는 대단히 즐거운 표정으로 갔으며 그가 사형을 받아 숨을 거둘 때에 “나는 사랑하시는 자의 받으심이 되었다”는 확신 아래 아주 평화롭게 숨을 거두는 것을 웨슬리는 보았다. 이 엄숙하고 감격스러운 장면을 본 웨슬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의 위대함을 새롭게 느꼈던 것이다.²⁰²⁾

그 다음 주일에 웨슬리는 영국인 조지 폭스(George Fox: 1624-1691)에 의해 창설된 퀘이커 모임인 폭스회에 참석했는데 이 모임에의 참석은 웨슬리의 부흥운동에 있어서와 감리회의 예배 의식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경험이었다.

나는 폭스회에 참석하였는데 내 가슴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이 넘쳐흘러 기왕부터 써오던 기도문의 형식에만 얽매어 있을 수 없었으며, 또는 거기에 속박 받으려고도 아니하고 그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자유로이 기도하였다²⁰³⁾

그 후 몇 주일 후에 웨슬리는 다시 벨러를 만났다. 그와의 대화 중에 웨슬리는 벨러가 말하는 신앙의 내용에 대하여 하등의 이견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웨슬리는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뢰심과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공로

201) Ibid.

202) *Works*, 1:110.

203) Ibid.

에 의하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 밖에도 그는 벨리가 말한바 이러한 산 신앙에는 그 결과로서 즐거움과 거룩함이 따른다는 것,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 하신다는 사실,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는 말씀이었다.²⁰⁴⁾

그러나 웨슬리는 믿음과 믿음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결과가 어떻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하여는 지극히 회의적이었다. 그는 구원의 신앙이 단 한번뿐이며 즉각적으로 받게 되는 선물이라는 벨리의 주장이 그에게 믿기지 않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웨슬리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확증을 찾기 위해 사도행전을 상고하였다. 그 결과 놀랍게도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례는 전부가 다 즉각적 회심의 사례들뿐이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사도바울의 회심이 온전히 일어날 때 까지 3일이 걸린 것이 주목할 만한 일이었지만 “그건 그렇다 해도 그것은 초대교회의 일이지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그 때와 꼭 같이 일하신다는 이유는 없지 않는가?”라고 최후로 항변해 보았다.

마침내 1738년 4월 23일 웨슬리는 “나의 마지막 항변도 벨리와 그 동지들의 산 증거로 말미암아 분쇄되고 말았다.”고 고백하였다. 벨리와 그 동지들은 웨슬리에게 은혜에 대한 경험을 정성껏 힘 있게 그리고 교육적으로 말하였다. 그들은 여러 가지 산 증거로써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아들의 피에 대한 믿음을 즉각적으로 주심과 동시에 어둠에서 광명으로, 죄와 두려움에서 거룩함과 행복으로 단번에 옮기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였다. 웨슬리는 더 이상 반론할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항변할 없었기에 “주님, 나의 이 불신앙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었다.²⁰⁵⁾

204) Ibid., 110-11.

205) Ibid., 111.

웨슬리는 그래도 자신이 없어서 벨러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여기에 대하여 벨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주를 땅에 묻어두지 말라고 그를 격려했으며, 그의 권고에 따라 그는 자기 친구들에게 신앙의 본질과 그 결과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기탄없이 진술하였다.

웨슬리는 5월 1일 찰스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런던으로 급하게 갔다. 거기에서 웨슬리는 벨러를 만났는데 그때까지 찰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새 믿음(the New faith)’에 대하여 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었으나 벨러와의 장시간 대화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웨슬리는 새 신앙을 가지고 가는 교회마다 설교를 하였다. 그러나 설교 후 더 이상 설교하지 말 것을 선고받았다. 웨슬리는 실망 가운데 있었으나 벨러의 격려의 서신을 통해 위안과 힘을 얻었다.

얼마 후 5월 19일 금요일 동생 찰스가 두 번째 늑막염이 재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방문한 후 토요일 밤을 기도로 지새웠다. 그 후에 웨슬리는 찰스가 그 영혼의 참된 안식을 찾았고 그의 체력도 그 시간부터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찰스가 중생의 체험을 얻은 것은 5월 21일 성령 강림 주일이었다.

찰스가 중생의 체험을 얻은 후에도 웨슬리는 여전히 마음의 불안과 답답함이 있었다. 이 때에 그의 한 친구에게 보낸 서신에는 웨슬리의 당시 심경과 신앙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나는 아직 참된 믿음을 얻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지 못했으며,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가지지 못했다. 성령이 나의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함이 없었다……. 오, 전 인류의 구주시여! 나로 온전히 주님만 믿게 하옵소서.²⁰⁶⁾

그때 벨러가 그의 동지들과 함께 찾아와 웨슬리가 중시하는 성경과 경험에 의하여 구속의 도리를 증명하여 주었다. 그는 참되고 산 믿음에는 과거나 현재의

206) Ibid., 118-19.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거기서 해방되었다는 의식이 따른다는 것과 이 믿음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 또 누구나 이 믿음을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 강력히 증거 해 주었다.

웨슬리는 이러한 믿음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다. 1738년 5월 24일 새벽 5시경 그는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그는 그 영광과 덕으로 가장 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함께 가지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벧후 1:4) 하는 말씀과 나오기 직전에 읽은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막12:34)라는 말씀이었다.²⁰⁷⁾

그날 오후에 웨슬리는 친구의 권유로 성 바울 교회에 갔었는데 거기서 그는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라.”(시 13:1-8)는 찬송을 불렀을 때 그의 무겁던 마음이 어느 정도 가벼워졌으나 만족할 만한 기쁨은 없었다.²⁰⁸⁾

죄와 불신앙으로 10년 동안이나 내적으로 싸움을 하던 웨슬리는 드디어 올더스게이트가에서 “나의 마음이 이상스럽게도 뜨거워짐”을 느끼게 되었다. 당시 웨슬리의 일기에 잘 표현되어있다.

저녁에는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은 채 올더스게이트가에 있는 어느 회에 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전쯤 되어서 그가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하신다고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나는 느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나는 악의적으로 나를 이용했거나 박해한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나

207) Ibid., 124.

208) Ibid.

서 나는 생전 처음 내 마음 속에 느낀 것을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터놓고 간증을 하였다.²⁰⁹⁾

웨슬리는 이 경험 후 찰스에게 “내가 지금은 믿는다”고 말하였다. 청년시절의 웨슬리의 신앙은 인간중심적인 신앙이었다. 1738년 이전의 웨슬리는 사람은 선행을 행함으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다. 그가 옥스퍼드에서 신성클럽 운동을 하며, 그 후에 미국 조지아에서 선교를 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자기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제는 웨슬리의 말대로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²¹⁰⁾

그 이후로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얻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은 후에 웨슬리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 대한 또는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 이 믿음을 통한 회개와 사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²¹¹⁾

웨슬리의 울더스게이트 체험 이후 그의 설교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하게 되었다. 구원이라는 주제는 웨슬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이 체험은 그의 믿음에 대한 이해와 의인관, 성서관, 은총관을 변화시켰다.²¹²⁾

울더스게이트의 체험은 무엇보다도 웨슬리의 믿음에 대한 이해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다. 그는 복음적인 회심이후 18일 만에 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Salvation by faith)이라는 설교를 통해 그 변화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웨슬리는 앞서 그의 모친에게 쓴 편지에서 믿음은 합리적인 어떤 근거에 동의하는 것이며 이성으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1738년 6월 11일 옥스퍼드 대학의 성마리아 교회당에서 다음과 같이 설교하였다.

209) 존 웨슬리, 『존 웨슬리의 일기』 김영운 옮김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8), 70.

210) 조종남, 『요한 웨슬레의 신학』, 29.

211) C. G. 셀, 『존 웨슬레의 재발견』 5쇄. 송홍국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4), 122.

212) Ibid., 70-77.

믿음이란 합리적이요, 사변적이며 냉랭하고 생명 없는 동의, 즉 어떤 관념의 연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인 것이다(롬 10:9-10).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에 대한 동의일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즉 예수의 생명과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신뢰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대속이시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²¹³⁾

이러한 믿음의 이해에 대한 변화는 그의 의인관에도 변화를 가지고 왔다. 당시 영국 교회의 영향 가운데 있던 웨슬리는 인간이 스스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성취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체험 후에 웨슬리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행위이며, 인간에게 값없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며 죄인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새로 짓는 것”으로 변화되었다.²¹⁴⁾ 한마디로 웨슬리가 말하는 의인은 죄의 용서이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의 피로 인해 죄를 사하시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일이다.²¹⁵⁾

웨슬리는 1729년부터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1725년부터 여러 고전을 읽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다짐하였다. 그는 이것이 성서에 입각한 것임을 알고 더욱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갖지는 못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였지만 이성을 초월하여 성경에 복종하고 굴복하지 못했다. 게다가 웨슬리는 1729년 이후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성경보다 고전을 더 중요시하는 과오를 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체험 후에 웨슬리는 성경을 전통과 이성과 경험보다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였고 한 책의 사람이 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였고, 성경을 체험하였다. 그의 설교 중 어떤 것을 읽어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의 설교에는 성구 인용이 많고 예화가 거의 없으며,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 나가고 있다.

213) *Works*, 5:72.

214) 조종남, 『요한웨슬레의 신학』, 74.

215) 한영태, 『웨슬레의 조직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4), 170.

웨슬리의 과거의 은총관은 영국국교회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어느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역사되어 구원받는다라는 반펠라기우스(SemiPelagianism)적인 견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²¹⁶⁾ 그러나 올더스게이트 체험 후에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은혜는 구원의 근원이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하였다.²¹⁷⁾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변화된 은총관은 칼빈의 이중예정론의 모순을 극복하고 율법폐기론적 요소와 모라비안의 정적주의 신앙을 바로잡는 것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책임을 가장 명확하게 연결시켰다.

이러한 체험은 웨슬리가 전도할 때 메시지의 변화를 가져왔다.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의 원리해설(1746년)”에서 1729년 이후의 자기 설교를 요약하였는데 이것은 또한 그가 오직 신앙으로만 가능한 의인에 집념하기 시작했을 때 전환점에 효과적으로 도달하였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1. 1725년부터 1729년까지 나는 설교를 많이 하였으나 나의 수고에 해당하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였다. 사실상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었다. 나는 참회나 또는 복음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닦지 못하였다. 나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신자들이었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상정했다.
2. 1729년부터 1734년까지 회개의 보다 심오한 바탕을 닦은 결과 약간의 열매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이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다. 나는 계약의 파에 대한 믿음을 설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1734년부터 1738년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더욱 강조할 때 나의 설교에서 보다 많은 열매를 거두었고 이전보다 더 많이 심방하였다. 물론 외적으로 변화된 저들이 내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회심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4. 1738년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속 증거하고 그를 신앙 전체의 근거로 삼으며 그를 모든 것 중의 모든 것, 처음과 나중으로 믿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믿으시오”란 말씀에 따라 설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번지는 것이’ 마치 북데기의 불과 같았다. 그것은 ‘더욱더 영광을 돌렸다. 민중들은 ‘우리가 구원

216) 조종남, 『요한웨슬레의 신학』, 76.

217) *Works*, 5:71.

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절규하였고 얼마 후에는 우리도 은총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증거하였다.²¹⁸⁾

전도자는 복음적 회심을 경험해야 한다. 이 체험이 없다면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없다. 전도자에게는 뜨거운 마음이 필요하다. 뜨거운 마음을 경험한 웨슬리는 복음적 회심을 경험한 후에 그의 복음 사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B. 지속적인 전도

복음적 회심을 경험한 후 웨슬리는 그의 생이 다할 때까지 전도하였다. 웨슬리는 복음의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 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만약 일회성의 뜨거움만으로 만족했다면 오늘날 웨슬리는 아무 영향력도 없는 사람일 것이다.

웨슬리는 말년에 교회와 국가의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처음에 그에게 문을 닫은 교회들이 다시 강단을 허락하였다. 웨슬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여행하며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그는 말을 타고 순회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다. 1738년 이후로부터 계산해도 51년 동안 말을 타고 한 여행은 25만 마일이나 한 셈이며, 하루에도 90마일씩 여행하며 두세 번씩 설교하였다. 이리하여 대략 4만 2천 4백번의 설교를 했다고 한다. 이는 한 해에 800번의 설교를 한 셈이 된다.²¹⁹⁾

웨슬리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도했다. 그는 주로 설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였지만 설교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개인적인 만남,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게다가 소그룹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였고 변증을 통하여, 은혜의 수단인 성찬식을 통하여 상황에 따라 복음을 쉬지 않고

218) 우드, 『존 웨슬리 위대한 전도자』, 94.

219) 조종남, 『요한 웨슬레의 신학』, 41.

전하는 삶을 살았다.²²⁰⁾

그의 전도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첫째 설교 전도이다. 그의 설교 가운데 상당수가 복음이었다. 그는 야외를 비롯하여 어디서든지 그에게 물려드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한 불타는 설교 전도자였다.

당시 영국 교회는 웨슬리에게 강단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웨슬리의 절친한 친구 조지 헛필드의 끈질긴 요청에 의해서 1739년 4월 1일 브리스톨에서 야외 설교를 시작하였다. 웨슬리는 이날 이후 생소한 방법인 야외 전도에 주력하였고 복음전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 전도자의 소명을 새롭게 깨닫고 민중을 위한 전도자의 일생을 출발하였다. 그 능력은 바로 나타났다.²²¹⁾

그의 일기를 통해 그 능력의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다. 4월 2일에는 약 3,000명에게 설교했고, 4일에는 1,500명에게 설교했다. 4월 8일에 하남(Hanam)산에서 1,500명에게, 10일 오전에는 바스(Bath)에서 1,000명에게, 같은 날 오후에는 2,000명에게, 15일에는 다시 하남 산에서 3,000명에게, 그리고 같은 날 로즈 그린에서 약 5,000명에게 설교했다. 4월 25일에는 밥티스트밀에서 약 2,000명에게, 29일에 뉴게이트에서 4,000명에게, 같은 날 다시 하남 산에서 3,000명에게, 또 같은 날 로즈그린에서 약 7,000명에게 설교했다. 5월 6일에는 밥티스트밀에서 약 6,000명에게, 또 같은 날 하남 산에서 3,000명에게 설교했다.²²²⁾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전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에 압도되어 큰소리를 지르며 죄를 회개했고, 온몸을 떨면서 고통과 슬픔의 감정을 터뜨렸다. 또 어떤 이들은 성령의 능력에 감동되어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렸고 일어서서 두 팔을 흔들기도 하고, 뒤로 넘어지며 구르기도 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무거운 짐과 고통에서 자유

220) 홍성철, 『불타는 전도자 존 웨슬리』, 314.

221) 송홍국, 『존 웨슬리의 생애』, 51.

222) *Works*, 1:210-17.

롭게 되었고 기쁨과 평화에 싸여 찬송을 불렀다.²²³⁾

웨슬리의 야외설교를 통한 전도는 브리스톨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갔으며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그의 설교의 효과는 철저한 회개로 나타났고 사회적 변화를 일으켰다. 그의 설교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난 날의 죄악된 생활에서 나와 마음과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켜 “전에 알콜 중독자가 거기서 해방 받고, 전에 창녀와 놀기를 즐기던 자가 그런 생활을 버리게 되었고, 도적이 변하여 정직과 근면으로 부지런히 하여 자기의 노력으로 일하여 살며, 전에는 남을 비방하고 악담을 즐기던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모범적 생활을 한다”고 웨슬리는 말하였다.²²⁴⁾

웨슬리의 복음 전도는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자들도 복음으로 설득당하기 시작했다.

1742년 링컨쇼의 감리교인들이 마차에 가득 실려 크로울의 치안판사 앞에 끌려가게 되었다. 그들이 잘못된 일이 무엇이냐고 그가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들 중에 주동자 한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저 사람들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난 체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합니다.” 판사는 묻기를 “그러나 그들이 그 밖에 다른 일은 한 것이 없는가요?” 하였을 때 어느 노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아내를 개종시켰습니다. 그녀가 그들에게 가기 전에는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양과 같이 조용합니다.”라고 말했다. 치안판사는 명령하기를 “그들은 돌려보내시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동리에 있는 바가지 굵는 모든 여인들을 개종시키게 하시오”라고 하였다.²²⁵⁾

웨슬리는 확실한 변화를 자주 경험하였다. 그는 1744년 애플워스에서 일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세인트 저스트의 사람들은 소동, 싸움, 음주 기타 모든 악행에 있어서 전국에서 으뜸을 차지하였으나 많은 사자들이 양으로 변하여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죄에 잡혀있는 자기 옛 동료들을 회심시키고 같이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²²⁶⁾

223)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253.

224) Ibid., 52.

225) *Works*, 1:424.

226) Ibid., 516.

웨슬리는 1748년 콘월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하나님께서 온 지역에 임재 하셨다. 안식일을 어기는 일과 술취함은 거리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저주와 욕설은 들어볼 수 없다. 부정은 이미 그 꼬리를 감추었다.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그것을 모두 제거하신 것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²²⁷⁾

또 웨슬리는 1772년 아브로스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 도시에는 실로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안식일의 어김, 저주, 욕설, 술취함 그리고 종교에 대한 모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공개적인 부정은 사라졌고 저주는 들을 수 없고 술취함은 거리에서 볼 수 없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악행을 중지하고 선행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내적인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의 평화 및 기쁨의 증인들이 되었다.”²²⁸⁾

웨슬리는 전도자로서 자기 자신의 경험에 입각하여 말하였고 죄의 확신과 순수한 회개로 인도하는데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설교의 형태에 대하여 피력하였다. 웨슬리는 칭의만을 강조하는 설교자가 아니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나 또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만 강조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칭의와 성화, 복음과 율법, 믿음과 사랑을 균형 있게 강조하는 설교자가 복음적 목회자라고 했다.²²⁹⁾

웨슬리의 설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초청하라, (2) 깨우치라, (3) 그리스도를 제시하라, (4) 세워주라.²³⁰⁾ 이것은 설교가 설교로 끝나지 않고 그 설교를 듣는 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받고 죄인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죄의 심각성을 깨우쳐주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다.

227) Ibid., 2:120.

228) Ibid., 3:476.

229) Ibid., 10:538.

230) 홍성철, 『불타는 전도자 존 웨슬리』, 265; *Thoughts Concerning Gospel Ministers: Works*, 10:538-540 에서는 웨슬리의 설교방법이 (1) 초청단계, (2)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단계, (3) 확신시키는 단계, (4) 성결의 생활로 세워나가는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웨슬리의 설교는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며 전도의 목적에 집중된 것이고 방법에 있어서는 설득하고 교육적인 성격, 즉 영혼의 구원과 삶에 실제적 변화에 있도록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웨슬리는 설교문을 그대로 읽지 않았다. 그는 교회당 안에서 주일예배나 공식예배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원고 없이 다만 설교 대지가 적힌 메모만 가지고 설교했다. 야외설교나 그밖에 비공식적인 집회에서는 원고 없이 즉흥설교를 하였다. 이것은 웨슬리가 전혀 설교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청중들을 바라보며 설교했다는 뜻이다. 웨슬리는 설교에서 한 가지 단순한 주제에 집중하여 시종일관하면서 동시에 한 설교에서 세 가지 요점으로 나누어 전개했고, 결론으로 가면서 결단과 헌신을 촉구했다.

웨슬리의 설교의 주제들은 크게 셋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 주제는 신앙의 근본교리들로서 성경에 근거하고 실제로 교인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목적과 전도적인 목적이 강한 것들, 즉 회개, 죄, 믿음, 칭의, 신생, 성화, 완전에 관한 교리들이다. 둘째 주제는 기독교인의 확증이다. 여기에는 주로 성령의 증거, 확신, 경험에 관한 설교들이 속한다. 세 번째 주제는 성화의 생활 즉 기독교인의 윤리적 생활에 관한 것이며 주로 산상설교,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것들이다.²³¹⁾

당시 영국교회의 목회는 교구에만 스스로 한정하고 산업지대, 광산지대등 교구 교회가 미치지 않는 곳에는 무관심하였다. 그러나 웨슬리는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다. 특별히 그의 청중들은 도둑들, 창녀들, 바보들, 모든 계급에 속한 사람들, 몇몇 저명인사들, 소수의 지식인들, 군인들, 상인들, 수다한 가난한 사람들, 예배당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 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이중에서도 웨슬리의 첫째가는 관심은 킹스우드의 광부들이었다. 연령도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하였다.

그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군중들이 모일 수 있거나 말이 들리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설교하였다. 한마디로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설교하였다. 그의 목소리는 종소리처럼 맑았고 특히 멀리까지 들리는 힘이 있었다.

231)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199.

웨슬리는 열정적인 설교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양육하고 신자의 부흥을 도모했다. 웨슬리의 마음에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모든 사람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개인 전도이다. 웨슬리는 영혼에 대한 순수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수없이 많은 개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는 모든 기회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

비록 웨슬리가 자기 자신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기에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웨슬리는 조지아 선교에서 실패하고 돌아오는 배 안에서 개인 전도를 하였다. 그는 함께 배를 탄 미성년인 흑인에게 전도를 하였다. 얼마 후 또 한 사람이 가담했다. 웨슬리는 열심히 가르쳤다. 예전에 그가 신성클럽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과 동일하게 하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기도 하였다.²³²⁾

웨슬리가 북쪽으로 여행할 때 리차드 모스와 동행하였으며 그는 자기 영혼의 위안을 찾고 있었다. 그는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의 “물질적 풍요”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웨슬리는 자기의 경우를 그에게 대략 말해주고 상한 마음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도록 권유하였다.

한번은 웨슬리가 뉴포트 파그넬을 떠날 때 어떤 심각한 사람과 더불어 대화하게 되었다. 그들은 신학적 견해에 관하여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여행자는 인내를 잃고 말았다. 그는 자기 동행자에게 말하기를 자기의 견해는 포괄적이며 자기는 존 웨슬리의 추종자라고 하였다. 그때 웨슬리는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소, 내가 존 웨슬리요”라고 하였다. 불행한 논쟁자는 이에 당황하여 웨슬리의 곁을 떠나려고 갖은 애를 다 썼다. 그러나 “나는 둘이 같이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노스앰튼의 거리에 도착하기까지 그의 옆에 앉아서 그에게 나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고 웨슬리는 말했다.²³³⁾ 그야말로 스스로 휴식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낚는 참 어부였다.

셋째, 소그룹을 통한 생활전도이다. 그는 항상 소그룹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

232) 슈미트, 『존 웨슬리: 신학적 전기 회심으로서의 내적 발견』 상(上), 274.

233) *Works*, 1:16.

과 교제를 나누면서 틈만 있으면 복음을 나누었다. 1743년 웨슬리는 뉴캐슬에서 멀지 않은 란필드를 방문하였다. “내가 거기에서(그리고 영국의 전 지역에서) 겪은 무서운 경험으로부터 더욱 확신하게 된 것은 악마 자신은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건 절반만 각성되고 다시 잠자는 상태로 떨어지도록 방치되는 것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내가 사후처리를 할 수 없는 것에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개종시키지 않기로 결심하였다.”²³⁴⁾

웨슬리 초기의 소그룹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사람들이 물으면서 시작되었다. 첫째 목요일 저녁에는 12명, 그 다음에는 40명, 그 다음에는 100명이 모여 들었다. 그들은 서로 기도하며 권면의 말씀을 받으며 사랑으로 서로 돌보아 주므로 그들이 피차 자기들의 구원을 이르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소그룹, 신도회는 속회, 조모임, 선택자회등을 통해 삶을 나누고 은혜를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였다.

넷째, 변증적 전도이다. 그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대화나 문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호하면서 동시에 전도하였다. 웨슬리는 교회 안과 밖으로 갖가지의 반대를 경험하였다. 웨슬리의 부흥운동과 그의 주장하는 도리, 특별히 성경적 거룩은 당시 영국교회 내외로부터 많은 오해와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이 반대의 목소리는 그의 생애와 사역을 마감할 때까지 거의 50년 동안 멈추지 않았다.

특별히 그는 당시 영국사회에 넓게 번져가는 이신론과 율법폐기론과 교계에 영향을 끼치는 칼빈주의는 그의 복음전파에 큰 장애물이었다.²³⁵⁾ 그러나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복음을 변증하는 사역에 탁월한 솜씨를 보였다. 1744년 “이성과 종교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진지한 호소”²³⁶⁾와, 그 후 2년 후 “이성과 종교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진지한 호소”를 각각 저술함으로 오해와 비난과 공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었다.²³⁷⁾ 그러나 무엇보다도 웨슬리는 그의

234) Ibid., 416.

235) Ibid., 288.

236) Ibid., 8:8-49.

회심자들에 의해 변증되었다. 1747년 6월 11일 그는 런던의 감독인 에드먼드 김슨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든 오해를 일축하고 명백한 사실을 제시하였다.

내가 지난 9년간 설교한 교리의 결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내가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 열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구름과 같은 증인들로서 내가 설교하는 복음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 시간에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습관성 음주자들이 지금은 모든 것에 절제하고 호색자들이 음란을 멀리 하고 도둑질하던 자들이 도둑을 그치고 손으로 노동하고 말끝마다 욕설과 저주를 담던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존경으로 그를 기쁘시게 하며 이전에 여러 가지 죄의 관습에 노예가 되었던 자들이 이제 경건의 관습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제시할 수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즉 나는 그들의 이름과 주소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의 하나는 수년간 공인된 무신론자였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상당한 수가 카톨릭교인이었으며 대다수가 종교의 힘과 같은 형식에 생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감독이시여 당신은 이 사실들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²³⁸⁾

웨슬리는 산 증거들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변증을 하였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신론, 복음전도와 성결을 방해하는 율법폐기론과 칼빈주의, 회개와 갱신이 필요한 영국국교회를 향하여 이론적 변증과 복음 전도를 하였다.²³⁹⁾

다섯째, 성만찬을 통한 전도이다. 물론 웨슬리는 성만찬을 믿음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예식으로 사용하였다. 동시에 성만찬은 회심을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신생을 체험하는 칭의와 신자의 성화를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처음 감리교 예배는 복음적 열심과 성례전적 기쁨의 조화를 이루었다. 처음 감리교의 성만찬은 은혜의 수단으로서 복음 전도적 예식(evangelical ordinance)이었다. 설교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성만찬을 통해서도 죄인들을 복음으로 초청하고 회심과 중생을 체험케 했다. 그래서 감리교 성만찬은 복음 전도의 방편이고

237) Ibid., 55-267.

238) 웨슬리, 『웨슬리 총서』 제10권. 김영운 역 (서울: 유니온출판사, 1983), 95.

239) 홍성철, 『불타는 전도자 존 웨슬리』, 314.

회심케 하는 예식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웨슬리는 조금의 믿음이라도 가지고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찬을 허락하였다. 그는 수찬자의 자격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지 안하고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였다.²⁴⁰⁾

성만찬은 인간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포괄적인 구속을 보고, 만지고, 맛볼 수 있는 형식으로 영적 감각에 제시하는 것이다. 성만찬은 눈에 보이고 몸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웨슬리는 성만찬을 복음전도에 자주 사용하였다. 그는 불신자들까지도 복음 전도를 위하여 성찬식에 초청해야 된다고 했다. 웨슬리는 성만찬에 참여하는 도중에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기록하고 있다. 수잔나는 성만찬을 복음의 가장 순수한 선포로 보았다.²⁴¹⁾ 다음은 수잔나의 간증이다.

이삼 주전 나의 사위 홀이 포도주 잔을 나에게 주면서 “당신을 위하여 내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라고 선언하는 말이 심장을 통하여 나에게 부딪혔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²⁴²⁾

웨슬리의 지속적인 전도는 수많은 회심자들을 만들었다. 수많은 회심의 결과는 또 다른 전도자들을 재생산하였다. 이것은 모든 의심과 비판을 제거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한 통로가 되었다. 개종자들은 증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 복음은 널리 퍼졌다. 많은 설교자들은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 웨슬리와 같은 순회 설교자가 되었다. 어떤 개종자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전도에 앞장서게 되었다.

240)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176.

241) Runyon, 『새로운 창조』, 187.

242) *Works*, 1:250.

VI. 결론

웨슬리는 성경적 성결을 이 땅에 전하였다. 그의 기도와 말씀, 교제와 전도는 결국 성결이 그 목적이었다. 특별히 웨슬리에게 성결은 곧 전도이며 전도는 성결이었다.

웨슬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호흡인 동시에 하나님께 순결한 마음을 들어올려 그와 나누는 끊임없는 교제라고 하였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이며 신자를 믿음과 사랑에서 성장케 하는 수단이다. 기도는 신자가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얻는데 필수적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생활에서 영성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이다.

웨슬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였고 아침과 저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였다. 그는 규칙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주제가 담긴 질문과 기도를 하였다. 이것은 성장에 필수적이다. 웨슬리는 기도의 장애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위선과 불성실, 낙심, 기도에 게으름, 마음중심을 드리지 않는 기도는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기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기도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복음전도의 기본이며 필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대는 매우 바쁜 시대가 되었다. 현대인들은 모두가 바쁘다고 아우성이다. 여기서 우리는 분주함을 기도하지 못함에 대한 이유로 합리화하고 있다. 예수님은 새벽미명에 기도하셨고 습관을 좇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이러한 규칙적 기도는 사도들에게, 그리고 웨슬리에게 전수되었다.

따라서 복음전도를 하기 원하는 사람은 웨슬리가 했던 것처럼 규칙적인 기도를 제안한다. 규칙적인 기도는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것이다. 먼저 아침기도이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거의 대부분 실시하고 있는 새벽기도이다. 새벽시간을 형식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 다음은

저녁기도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 기도하신 것처럼 모든 일이 마쳤을 때 기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오에 기도문을 통한 기도이다. 미전도 종족과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과 자신을 위해 정오에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현재 바나바훈련원 (이강천 목사)에서 전도를 위해 주기도문을 이용하여 작성한 기도문의 예문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제)가 ○○○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 하여 올립니다. 저에게 임하시고 구원하사 저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심령과 가정에 임하사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저의 영혼을 포박하고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어 몰아내시고 저의 영혼은 풀어내사 자유케 하소서 우리(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 영혼을 포박하고 있는 어두움의 영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이고 저를 떠날지어다. 저를 자유케 할지어다. 우리(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저의 영혼에 중보로 뿌리노라. 악한 영은 저를 떠날지어다. ○○○의 영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려나 자유케 되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을 찬양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령님이여! 임하사 저의 구원을 인치시고 저를 품으사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도 하늘 양식을 먹게 하시고 하늘 생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저의 죄를 사하시되 저의 불신과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사하시고 저의 조상적 죄조차 사하시며 저가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저가 더 이상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한 자에게 끌려 다니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하옵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의 권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웨슬리는 말씀의 사람이다. 규칙적으로 새벽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였다. 그는 성경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자세로 읽었다. 그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었다. 그는 성경을 포괄적으로 읽었다. 그는 평생 동안 읽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성경을 목적을 가지고 읽었다. 그가 배운 것은 반드시 실행에 옮기려고 하였으며 성경을 깨닫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웨슬리는 성경을 암송하였다. 성경의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었다. 그가 그의 설교에서 그렇게 많

은 성구를 인용하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웨슬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에 조건 없이 굴복한 순종의 사람이다. 이를 위해 웨슬리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적용하였다. 오늘날 자기부인이나 굴복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곳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굴복이 있다. 초대교회 충성스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들은 기다렸다(행 1:4; 2:1). 하나님의 영이 빌립에게 마차에 타고 있는 내시를 만나보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는 달려갔다(행 8:29,30). 마케도니아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바울에게 와서 도와줄 것을 간청했을 때 바울은 곧장 계획을 수립하고 그곳으로 떠났다(행 16:10).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복종했다.

마찬가지로 웨슬리도 말씀에 굴복하였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약한 자들을 돌보았다. 구제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였다. 50년 동안 당시 영국국교회의 반대와 여러 부류의 반대에도 웨슬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였다. 복음전도에 있어서 말씀과 순종을 통한 변화는 필수적이다.

지식의 훈련을 위해 성경을 읽고 암송해야하며 성경공부를 할 수 있는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은 변화의 훈련을 위해 큰 유익을 준다. 개인적인 적용과 함께 소그룹에서 공동체적 적용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데 필요한 은혜의 도구이다.

우리가 기억해야할 것은 규칙을 정해놓고 해야 한다. 웨슬리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읽되 연속성을 가지고 읽으라. 둘째,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읽으라. 셋째,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며 읽으라. 넷째, 성령으로부터 교훈을 받기 위해 반드시 기도하며 읽으라. 넷째, 배운 것이나 깨달은 것은 즉시 실행에 옮기려는 결심을 가지고 읽으라.

웨슬리는 교제의 사람이었다. 웨슬리는 신성클럽과 조지아의 종교신도회, 페터레인 신도회에서 소그룹을 경험하였다. 이 소그룹을 통하여 역동성을 경험하고 실행할 수 있었다. 또 그 안에서 교제를 통하여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

웨슬리는 이것을 기초로 자신의 소그룹을 만들어 전도한 사람들을 강력한 양육으로 이끌었다. 그는 신도회를 조직하고 그 안에 속회와 조모임 그리고 선택사회, 회개회등을 조직하였다. 이 소그룹들을 통하여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권면과 위로로 통해 복음전도의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되었다. 그 결과 “세계는 나의 교구”라는 그의 말이 실현되었다. 복음전도를 위하여 교제는 중요하다.

복음전도를 위하여 우리는 가까이 있는 건강한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그 소그룹에서 삶을 나누고 그 역동성을 경험해야 한다. 그리고 소그룹을 인도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받아야 한다. 복음을 듣고 돌아온 영혼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는다면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다. 웨슬리는 이런 곳에서는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했다. 복음을 전했으면 그 사람을 소그룹으로 만들어 그들의 관심을 알고 삶을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양육해야 한다. 이것이 본질적인 전도이다.

웨슬리는 전도의 사람이었다. 그는 많은 사역의 실패를 경험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실패는 그로 하여금 복음적 회심을 통하여 그의 생각과 사고와 신앙에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복음 전도자는 울더스게이트의 체험과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 이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 마음은 영혼을 향한 사랑을 더 타오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웨슬리는 복음적 회심을 경험한 후 지속적으로 전도했으며 평생 전도했다. 일시적인 전도는 전도자를 만들 수 없다. 복음전도는 뜨거운 마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울더스게이트 체험이후 웨슬리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페터 레인 신도회에서 애찬식 및 철야기도회를 갖고 있었다. 여기에서 웨슬리는 “새벽 3시에 우리가 자유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여러 사람이 땅에 쓰러졌다.” 드디어 전도자 웨슬리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 곧 성령 충만을 경험하였다. 성령 충만의 체험은 웨슬리의 삶의 목적이 전도가 되게 하였다.

웨슬리는 이후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다. 그의 일기는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까지 기록하였는데 복음을 전

하고 그 결과 회개의 역사, 성결의 결단으로 가득 차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위대한 전도자였다.

이를 위해 전도훈련도 받아야 한다. 전도훈련을 받지 못하면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도하면서 불신자들과 접촉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런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불신자들을 만나야 한다. 불신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반드시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지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다.

우리는 복음전도를 위하여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교제와 전도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전도자를 만들 수 있고 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복음전도를 위한 웨슬리의 영성을 삶 속에서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I. 1차자료

- Wesley, John. *Works of John Wesley*, 제1권, 제2권, 제5권, 제6권, 제8권, 제10권, 제11권, Hendrickson Publishers 편집. Peabody, MA : Hendrickson Publishers, 1991.
- 웨슬레, 요한. 『요한 웨슬레 설교선집』 조종남 편. 서울: 도서출판 서로사랑, 1994.
- _____. 『웨슬레의 기독교의 완전성에 대한 해설』 조종남 역. 서울: 한국복음문서간행사, 1996.
- _____. 『웨슬리 총서』 제1권, 제2권, 제4권, 제5권, 10권. 서울: 유니온출판사, 1983.
- _____. 『웨슬레 성서주해』 로저 웨날스 편집. 조종남 역. 서울: 기성출판부, 2000.
- _____. 『존 웨슬리의 일기』 김영운 옮김.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8.
- _____. 『요한 웨슬리의 산상수훈』 차동재 옮김.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9.

II. 2차자료

- Simon, S. John. *John Wesley and Religious Societies*. London: The Epworth Press, 1955.
- 델리모어, A. 아놀드.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김석천 옮김. 서울: 도서출판 세복, 1999.
- 러넨, 테오도르. 『새로운 창조-오늘의 웨슬리 신학』 김고광 옮김.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2001.
- 로오, 윌리엄. 『경건을 위하여(A Serious Call to a Devout and Holy Life)』. 앤드류 머레이 편. 서문강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 밀러, 바실. 『요한 웨슬리의 생애』 한영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 셀, C. G. 『존 웨슬레의 재발견』 송홍국 역, 5쇄.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4.
- 소젠, A.D. 도널드, 『웨슬레 신학의 사변형』. 서울: 한국복음문서간행회, 2001.
- 슈미트, 마르틴. 『존 웨슬리-신학적 전기 회심으로서의 내적발견』 상. 김덕순 김영선 공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7.

- _____. 『존 웨슬리-신학적 전기 복음주의 운동의 과정과 반대』 중. 김덕순 김영선 공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7.
- _____. 『존 웨슬리-위대한 사역자』 하. 김덕순 김영선 공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7.
- 우드, 스케빙톤. 『존 웨슬리: 위대한 전도자』 김선도 역. 서울: 신교출판사, 1976.
- 하퍼, 스티브. 『웨슬리 전통에 있어서의 경건생활: 감리교 영성생활의 뿌리』 박인환 옮김. 서울: 성서연구사, 1995.
-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서울: 도서출판 진향, 2000.
- 박명수. 『근대복음주의 주요흐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송홍국. 『존 웨슬리의 생애』. 『존 웨슬리 총서』 제4권. 서울: 신교출판사, 1976.
- 이후정. 『성화의 길-오늘을 위한 웨슬리의 영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조종남. 『요한 웨슬레의 신학』 5쇄.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9.
- 한영태. 『웨슬레의 조직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4.
- 홍성철. 『불타는 전도자 존 웨슬리』. 서울: 도서출판 세북, 1999.

Ⅲ. 소논문 및 학위논문

- 마조리 수하키, “기도의 완전.” 『웨슬리 신학 다시보기』. 랜디매덕스 엮음. 이후정 역.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홍보출판국, 2000: 61-79.
- 발만, 요하네스, “경건주의의 이해” 『독일의 경건주의』 주도홍 편집.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7-36.
- 슈페너, 야콥 필립, “경건한 요망” 『독일의 경건주의』 주도홍 편집.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37-144.
- 콜린즈, 케니쓰. “요한 웨슬레의 회심: 능력으로의 변화.” 『회심』 홍성철 편저. 서울: 도서출판 세북, 1995. 221-55.
- 정홍호, “영성의 정의에 관한 선교신학적 고찰과 적용”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논문집 성결과 신학』 제23권. (1998): 211-36.

조종남, “올더스게이트 체험이 그의 신학형성에 끼친 영향.” 『요한웨슬레의 신학』 5
쇄.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9), 60-78.

하도균, “초기 한국성결교회의 전도활동에 관한 연구.” Ph.D. 논문. 서울신학대학교대학원, 2001.

홍성철, “영성훈련의 모델과 적용,” 웨슬리 회심기념강좌②. 서울신학대학교 (2002, 5)

IV. 기타서적

그린, 마이클. 『초대교회 복음전도』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텔리모어, A. 아놀드. 『조지 윌필드』 오현미 옮김. 서울: 두란노서원, 1990.

듀웰, 웨슬리. 『능력있고 응답받는 기도』 주상지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스타트, 존. 『전도하지 않는 죄』 김영배 역. 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1981.

왓슨, 데이비드. 『복음전도』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0.

위커, 윌리스턴. 『기독교회사』 송인설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콜만, 로버트. 『주님의 제자훈련 계획』 김영현 옮김. 서울: 두란노서원, 1987.

테리, 존. 『전도하는 교회가 성장한다』 김태곤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페커, 제임스. 『성령을 아는 지식』 홍종락 옮김. 서울: 홍성사, 2002

포스터, 밥. 『불타는 세계비전』. 서울: 네비게이트출판사, 1999.

하퍼, 스티브. 『현대인을 위한 존 웨슬리의 메시지』 김석천 옮김. 서울: 도서출판 세복, 1998.

유상섭.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자』. 서울: 규장문화사, 1999.

장학일. 『교회의 체질을 바꿔라』. 서울: 밴드목회연구원, 2002.

홍성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서울: 도서출판세복, 1998.

_____.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 서울: 도서출판 세복, 2004.

_____. 『현대인을 위한 복음전도의 성경적 모델-예수님의 개인전도방법』. 서울:
도서출판 세복, 2002.